

동대신문사 주최

제47회 동대 학술상



왼쪽부터 인문과학부원 장원 김지수(국교4), 가작 정해정(영문4), 사회과학부원 장원 이기림(정의3), 가작 권순호(관광경영2)

부 문	시 상	수 상 자	소 속	작 품 명	상 금
인문 과학	장원	김지수	사범대 국어교육과 4	문학 텍스트의 해석 활동을 통한 문학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알레고리의 해석 활동과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1,000,000
	가작	정해정	문과대 영어영문학전공 4	리랑의 실재계 논의를 통해 바라본 탈구조주의적 주체형성에 대한 소론 - 실재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500,000
사회 과학	장원	이기림	사과대 정치외교학전공 3	변화하는 한국의 위상에 따른 재한 외국인 인권의 재조명 -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제 3세계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실을 중심으로	₩1,000,000
	가작	권순호	경영·관광대 관광경영학전공 2	창조도시의 개념과 사례연구	₩500,000
자연 과학	장원	없음			
	가작	없음			

인문과학부원 심사평

장원, 학문적인 글쓰기 장점 가장 두드러져

보다 분발하여 좋은 연구자 되길 기대

‘리랑의 실재계 논의를 통해 바라본 탈구조주의적 주체형성에 대한 소론’은 기존의 정신분석학 관련 논의를 정리한 것이어서 자기주장을 펴는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관적 상징계’나 ‘주관적 실재계’ 같은 새로운 개념을 착안하고 진술해 보고자 하는 창의성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책을 읽다가 무심코 만나게 된 한 구절의 의문을 풀기 위해 도전한 과제라는 자기고백은 응모자의 학문적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다. 가작으로 격려한다.

‘<벽공무한>에 나타난 여성의 이분화’는 독특한 연구대상이지만 논문을 이끌어가는 리터러시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학술적 글쓰기의 체계도 보완해야 한

다. 그러나 상상력과 창의력의 재능이 있는 응모자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발달하고 창의적인 에세이스트가 되리라 생각한다.

‘문학 텍스트의 해석 활동을 통한 문학 능력 향상 방안 연구’는 학술논문의 체계가 잘 갖추어진 경우이다.

이론을 정리하고 실제에 적용하며 이를 통해 자기 논의의 의의를 정리함으로써 문제의 발견과 해결의 과정의 한 모형을 선보였다.

많지 않은 응모자 가운데 그나마 학술적인 글쓰기의 장점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여서 장원으로 선한다.

이를 계기로 보다 분발하여 좋은 연구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재웅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사회과학부원 심사평

응모작들 대체로 짜임새 있는 괜찮은 수준

주제의 참신성·논리의 일관성 등에서 당선작 더 나아

예상보다 응모자가 많지 않았지만, 논문들은 대부분 짜임새 있다.

문제의식이 있고, 글쓰기도 대체로 괜찮은 수준이다.

탈락 논문 중 한두 편은 당선작으로 뽑아도 될 듯하다. 장원과 가작은 주제의 참신함, 논지의 일관성, 대안제시 능력 등에서 좀 더 나은 논문들이다.

장원 ‘변화하는 한국의 위상에 따른 재한 외국인 인권의 재조명’은 한국사회에서 이슈화하고 있는 이주여성 인권

실태와 해결방안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

가작 ‘창조도시의 개념과 사례 연구’는 주제가 참신하고, 콘크리트 도시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해외도시의 사례를 잘 설명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과 질에서 보다 나은 논문들을 제출하길 기대한다.

김용현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교수)

동대신문사 주최

제23회 동대 문학상

시부문 심사평

시에 대한 순수한 관심 열정 잘 드러나

응모작들, 작품수준 완성도 면에서 편차 심한 편

동대문학상 시부문의 올해 응모작품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동대문학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결과였다. 투고 작품은 총 34편인데 응모자들의 작품 수준이 그 완성도 면에서 볼 때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일단 당선권 수준의 작품은 4편 정도가 눈에 띄었다. 다른 작품들은 아직 습자 기간이 부족하거나 시 쓰기의 여러 문제(형식, 관찰력, 정서적 표현력 등)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시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열정만은 잘 드러나 보기에 좋았다. ‘스마일 맨’, ‘손을 먹는 사람들’, ‘가을 홍시’가 마지막까지 눈길을

끌었다. ‘스마일 맨’, ‘손을 먹는 사람들’은 동일한 투고자의 작품으로 시를 쓰는 솜씨가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다. 반면, 두 작품 모두 다소 소품인 점, 상상력이나 이미지는 도전적이지만 독창성이 부족하고 다소의 상투성이 느껴진다는 점이 단점이었다. ‘가을 홍시’는 역시 소품이지만 참신하고 깔끔한 이미지, 언어구사, 정서적 전달력 등이 좋은 작품이다.

참신한 이미지와 정서 환기력이 높은 ‘가을 홍시’를 장원으로, 상상력과 시적 구성의 훈련이 잘 된 ‘손을 먹는 사람들’을 가작으로 선정했다. 두 사람 모두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김춘식 (문과대 국어국문과 교수)



왼쪽부터 시부문 장원 김지혜(교육3), 가작 권민자(문창3), 소설부문 장원 이갑수(문창4, 동생 대 리 참석), 가작 이지영(문창1), 희곡·시나리오부문 가작 최병준(문창4)

부 문	시 상	수 상 자	소 속	작 품 명	상 금
시	장원	김지혜	사범대 교육학과 3	가을홍시	₩500,000
	가작	권민자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3	손을 먹는 사람들	₩300,000
소설	장원	이갑수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4	합리적인 광기	₩1,000,000
	가작	이지영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1	안녕, 마돈나	₩500,000
희곡 시나리오	장원	경윤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4	여행	₩1,000,000
	가작	최병준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4	개밥바라기	₩500,000

소설부문 심사평

단편소설, 서사와 미학의 조화가 생명

기본기에 보다 충실한 작품을 장원으로 선정

본심에 오른 일곱 편의 평균적 모습은 소통의 부재를 앓는 소설들이 많았다.

자연히, 들려주는 이야기가 시원찮고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이 갖지 못하며 명료하지 않은 응얼거림이 많다.

기본적으로 소설이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단편소설이란 인생의 단면을 예리한 칼날같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소설가란 무엇보다 문장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드물었다.

자극적이거나 잔혹한 장면이 필연성 없이 자주 나온다는 점, 삶을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 정도로 이해하려는 경향,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를 억지로 하려는 듯한 인상 등도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안녕, 마돈나’는 신선한 발상과 감각적이고 유려한 문체가 돋보인다. 잠재적 재능이 뛰어나다. 그러나 단편 소설치고는 인물들과 이야기 가닥들이

너무 많고 이들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는 데 미흡했다. 다소 들떠 있다. ‘다람쥐 구조대’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나 김의 심리와 다람쥐통, 개, 여자의 설정이 주제를 만들어가는 데 유기적이지 않다. 제목도 모호하다.

‘합리적인 광기’는 애원권으로 인해 아내와 딸에게 버림받은 한 가정의 모습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구성이 탄탄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그러나 절정까지의 긴장감에 비해 끝맺음이 다소 허약하다.

‘안녕, 마돈나’와 ‘합리적인 광기’ 중에서 ‘합리적인 광기’를 서사와 미학의 강렬한 조화가 생명인 단편소설의 기본기에 보다 충실하다고 판단하여 장원으로, ‘안녕, 마돈나’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가작으로 선한다.

두 사람의 수상을 축하하며 나머지 응모자들의 지속적인 정진을 기원한다.

김혜련 (문학평론가)

희곡·시나리오 부문 심사평

소재의 신선한 문장력으로 당선작 결정

극적 형상화와 극적 활력 부족 ... 개작 권해

‘여행’을 장원으로 ‘개밥바라기’를 가작으로 선한다.

‘개밥바라기’는 철거를 앞둔 집창촌의 창녀출신 포주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심대, 이십대, 삼십대, 사십대의 여자 네 명이 나누어 맡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소재의 신선함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허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며 멋진 화음을 발산해내는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남자역의 캐릭터나 용도도 불만족스러웠다. 한마디로 극적 형상화가 조금

부족한 작품이었다. 개작을 권한다.

‘여행’은 문장력이 단연 일품이었다. 문장력이란 B급 소재를 A급 작품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긴요한 도구인데 ‘여행’의 작가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 좋은 무기를 장착한 듯 보였다.

대개 문장력이 있는 작가는 극적 활력이 부족한 것이 흠인데 이 작품의 경우 예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편을 죽인 아내와 이 사실을 알게 된 딸, 그 모녀의 번민과 충돌을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했다. 그 지점이 빠져 있어 아쉬웠다. 역시 개작을 권한다.

이만희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본사 홈페이지(http://www.dgupress.com)에서 전체 당선작품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국제화의 현주소와 그 방향

진정한 국제화, 세계적인 대학으로 뻗어갈 수 있는 발판

장기적인 관점과 질적인 국제화에 대한 고민과 노력 필요



▲ 오영교 총장이 Charles Sturt University와 맺는 학술교류협정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대학이 Sunshine Coast대학, Wollongong 대학, Charles Sturt대학, Deakin대학 등 호주 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75개 외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게 됐다. 우리대학은 오영교 총장 부임해인 2007년을 시작으로, 2008년 한해만 해도 17개의 해외 대학과 학술교류를 맺는 등의 활발한 교류협정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대학은 올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 국제화 부분에서 37위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했다. 현재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세계 속의 대학'이란 목표를 내걸고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서강대도 지난 8월에 외국인 기숙사인 '국제관'을 건립해 외국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상황이다.

'국제화'는 요즘 대학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이다. 대학들은 자신들이 만든 국제화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외국인 교원 수와 영어강의 강좌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각 대학홈페이지는 모두 타입이나 뉴스위크 같은 잡지들이 선정하는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대학의 국제화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국제화의 진정한 의미

대학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세계화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는 점점 교류의 확대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나라간의 실질적인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창의적이고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이 세계의 모든 시장을 하나로 엮어 줌으로써 물류비

만 지불하면 인터넷으로 어디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세계시장이 하나로 연결되자 예전엔 국내시장에서 자국의 경쟁자들만 신경 쓰면 됐던 시대와 달리, 각 나라와 기업들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가열된 경쟁 속에 기업은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자신들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국제화라 부른다. 결국 국제화는 경제 주체 하나인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민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국제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실 현재 대학의 국제화는 순수한 학문적인 측면보다는 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대학의 역할이 세계화 속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뚜렷한 기준 없이 세계화의 흐름에만 편승하는 것은 주체적인 국제화라기보다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국제화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한계

국내에서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가 대학의 국제화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정 받고 있는 분위기이다. 우리대학도 2007년 '대학평가팀'을 따로 구성할 정도로 현재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평가 항목들은 국제화를 추진하는 대학들에게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

중앙일보 평가의 국제화 부분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임 이상 외국인 교수 비율(20)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15) △해외 파견 교환 학생 비율(10)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5) △영어강좌 비율(20)로 양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다.



▲ 일본 삿포로 학원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우리 대학 학생들과 일본 친구들의 기념 촬영.

반면 타임지가 세계 100대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그 대학의 학문적인 연구 역량의 척도, 논문의 질과 양이 양적 비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타임지의 세계 100대 대학 선정기준은 △논문 인용연 연구자 수,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수, 미국 과학정보연구원(ISI)의 인문사회과학 논문 인용지수 등이 50%, △외국인 교수·학생 비율, 교수 1인당 논문인용지수, 학생 대 교수 비율 등을 40%, 그리고 도서관 장서 규모가 10% 이다. 물론 타임지의 대학평가 지수도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지표가 더 인정받고 세계의 대학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한 양적인 비율 보다 대학의 연구, 논문 질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국제화를 위해선 영어는 전제조건

현재 학문의 영역에서도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비영어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교육이 국제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영어 강의 확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대학들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영어강의는 2학기 기준으로 전체 1077개의 강좌 중 128개로 전체 강좌 대비 8.41%다.

비록 카이스트(35.18%), 고려대(22.18%)와 같이 오래 전부터 영어강의를 정착시키려 노력해 온 대학들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우리대학도 전공과목에서 영어강좌 수를 늘리는 등 영어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한 교수는 "영어강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공감하지만 "영어강의를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영어 강의엔 영어에 친근한 학생들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환경의 밑바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학생, 동아시아권에 편중

우리대학은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다행히 현재 대학에선 유학생과 외국인 교수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관 설립 사업이 준비 단계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 시설의 확보가 부족한 상태다. 또 우리대학은 외국인 입학생이 지나치게 중국 학생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459명의 외국인 입학생 중 중국인 학생이 394명, 대만, 홍콩, 일본 학생들이 각각 20, 19, 11명 등 94.3%가 동아시아권에 치중되어 있다. 교환학생으로 오는 외국인 학생도 23명 중 중국과 일본 학생 수가 각각 12명 9명일 정도로 동양권 학생들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앞으로 국제화의 실질적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해외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속해있는 국가의 특성과 경쟁력도 따진다. 중국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대학은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관점에서 미주 유럽 쪽의 학생들을 끌어 올린다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

우리대학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는 영어트랙, English Clinic, 영어강의, 교환학생, 복수학위제 등이 있다.

교환학생의 경우, 현재 평균 우리대학이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수는 100여명으로 대부분 영미권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학한다. 또 English Clinic은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있어 원어인 선생님들로 하여금 Speaking, Writing, Reading 같은 과목에 피드백을 받아 실력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학

술교류협정이거나 외국인 교환학생 수도 2007년 오영교 총장 취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복수학위에 관해서도 뉴욕주립대(SUNY-Stony Brook)와 텍사스대(University of Texas, Dallas)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해 학생들이 두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우리대학에선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실시해 교양 과정을 영어트랙과 비영어트랙으로 구분하는 영어 트랙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 트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모든 교양 수업을 영어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발전 필요

타임지의 세계 100대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세계 기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는 그 대학의 연구 역량과 학문의 질이다. 물론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초적인 영어의 기반을 다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연구 기반 확충과 연구 공간 문제 해결, 우수 인재 유치 노력 등이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아직 우리대학은 WCUI(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사업)에 채택될 만큼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타 대학만큼 활발하진 않지만 현재 더 많은 연구 수주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현재 내년에 더 많은 연구 과제들을 수주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올해도 여러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학문의 깊이는 단 시간에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람 혼자서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조직 내 구성원들의 협조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대학은 장기적으로 우수한 외국 학생들과 교환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대학만의 경쟁력과 강점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술 교류 협정과 같은 '양적 국제화'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리대학에 맞는 특성화된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대학은 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성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불교대학의 한 교수는 "현재 서양 문화권에선 티벳 불교와 인도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양 문화권에서의 높아지고 있는 불교의 위상에 대해 밝혔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대학만의 불교 학문의 특화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처럼 단계적인 양적 위주의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이고 질적인 국제화도 매우 중요하다.

당장은 시급하지만 우리대학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질적인 국제화도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대학의 국제화는 우리대학만의 주제적인 국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기말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200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12.8~12.19) 중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공부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구분	구분	개관시간(토, 일요일 포함)
중앙도서관	자료실	08:00-22:00
	별관 열람실	24시간
법학도서관(만해관)	자료실	08:00-22:00
	열람실	24시간

※ 단, 멀티미디어실(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개관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
※ 좌석 사석화, 한 사람이 여러 자리 잡아 주기 등 비양심적인 행동 금지

2. 장충문화체육센터 독서실 이용

가. 이용 시간
(1) 월요일~금요일 : 06:00~22:00
(2) 토요일 ~ 일요일 : 09:00~18:00
나. 이용 좌석 : 100석(남, 여 각 50석)
다. 이용 대상 : 재학생 한정하여 선착순(학생증 지참)
라. 비용 : 무료(도서관에서 부담)
마. 기타 : 중앙도서관 증축기간(2008.11~2009.6.30)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3. 강의실 대관 및 이용안내

가. 목적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 일부를 도서관 명의로 대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을 일시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하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나. 강의실 대관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을 도서관 명의로 대관
(1) 강의실 이용시간 : 07:00~13:00
(2) 대관된 강의실 :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

다. 강의실 조화 시스템 안내 :
(1) 동국대학교 시설대관 시스템에서 가능
(2) 학교 홈페이지 → 학사/생활 → 학사센터 → 시설대관신청 → 빈강의실 찾기 → 조회
(3)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강의실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앙도서관

동국인의 참회와 발심을 위한 3,000배 절야 용맹 정진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는 동국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의 함양과 고취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3천배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열 다섯 번째 3천배 절야 정진이 아래와 같이 불행되오니 뜻을 같이 하시는 동국인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고통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1. 일 시 : 2008년 12월 6일(토) 저녁 8시 30분~12월 7일(일) 새벽 5시 까지
※ 매일 첫째 토요일 정기적으로 병행함.

2. 장 소 : 정각원 법당

3. 대 상 : 동국 가족 및 일반인 희망자

4. 준비물 : 염주, 수건, 방한복
※ 초심자, 절을 잘 못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서울캠퍼스 정각원

2008년 불교학과 동문 송년회 및 정기총회

동국대학교 건학 102주년과 불교학과 창설 102주년을 맞아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12월 8일 (월) 오후 6시
■ 장소 :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오키드롬 (19층)
■ 참가회비 : 5만원
■ 연락처 : 02-2260-3835 (동국대학교 교수회관 120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아간) 2009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디지털컨버전스 전공 신설"

■ 모집학과 및 전공

-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버전스전공),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 (출판집지전공, 인쇄화상전공)

■ 모집인원 : 00 명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8. 12. 10(월) ~ 12. 19(금) 17:00까지

■ 전형일 : 개별부지

■ 문의처 : 02-2260-3733-3735(학사운영실), FAX 02-2260-3736

■ 기타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ci.dongguk.edu) 참조

■ 특전

- 국내 유일의 디지털컨버전스 석사과정 전공 신설
- 설립 20년 전통, 언론인, 방송인, 인쇄출판계 CEO 등 천여명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 공무원, 언론인, 군인,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각종 장학특전

※ 디지털컨버전스 전공 교육목표 : 디지털 기술혁명의 결과로 현대사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집약으로 과거에는 구현할 수 없었던 양방향 서비스라는 패러다임이 보편화됨과 동시에 네트워크의 컨버전스, 서비스의 컨버전스, 콘텐츠의 컨버전스가 다양한 디지털 뉴미디어 디바이스와 채널을 중심으로 동시다발, 상호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디지털 컨버전스 전공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에 대해 해당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S 특강 개설 안내

Microsoft가 인증하는 국제공인 자격증? 취업에 생략한다면 MOS MASTER 자격증 취득은 필수? 동국대 전산원이 여러분의 취업과 함께합니다!

2008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을 맞아 전산원 및 동국대학교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MOS 특강을 개설하니 희망하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MOS 특강 시간표

구분	기간	시간	과목	수업일자
평일반	1차 12/23-1/19 2차 1/20-2/16	오전 10:00-12:30 오후 14:00-16:30 오전 18:00-20:30	1주 ☑	※ 매주 화-월 매주 월요일 수업중 시범
			2주 ☑	
주말반	1차 12/20-1/11 2차 1/17-2/5	오후 13:00-18:00	3주 ☑	※ 매주 토-일 토요일 오전 11:00 시범
			4주 ☑	

2. 교육료 :

- 총 350,000원(음식료, 교재 포함)
- 가. 교육수강료 : 150,000원 (4과목, 교재 포함, 개별과목 수강료 : 60,000원) (전산원 학생은 학생증 제시시 90,000원으로 특별 할인함)
- 나. 시험응시료 : 200,000원 (과목, EXPERT과정 55,000원, CORE과정 45,000원) (시험응시료는 http://mos.bsmsia.com/ 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3. 특강 신청방법

홈페이지 인터넷신청 후 수강료를 계좌이체하거나 전산원에 납부
<수강료 납입계좌 : 신한은행 140-005-535247 (예금주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4. 특강 강의실 :

전산원 LAB 실습실 (해관관 5층)

5. 접수기간 :

2008. 12. 1(월)부터 선착순 접수

6. 접수처 :

전산원 홈페이지(http://www.ducsi.ac.kr) 또는 학사서비스팀(해관관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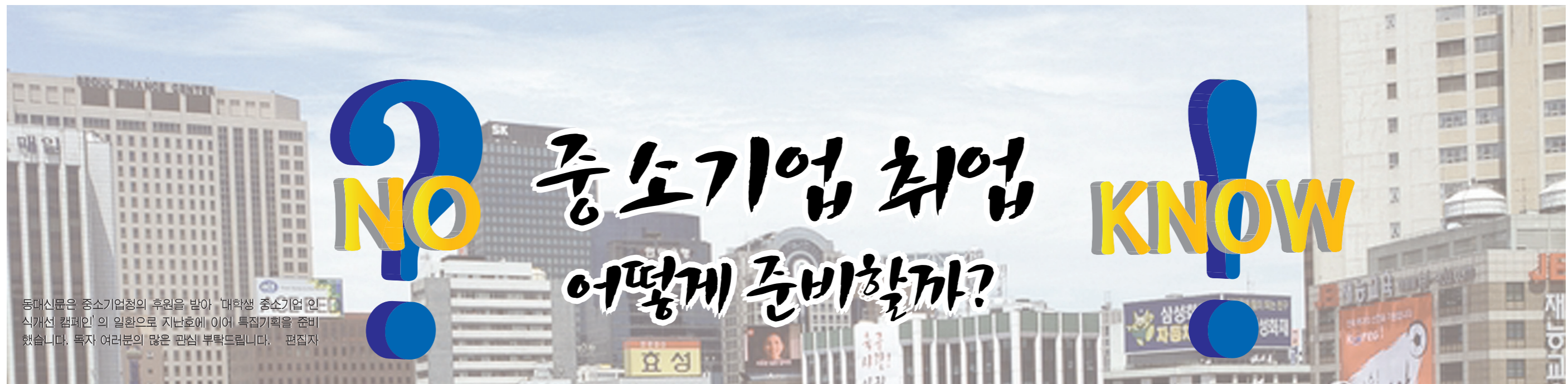
7. 교육과정 특장

가. MOS Master(Ver.2003) 취득과정(4주 완성)
나. 시험 합격률 95% 이상, 교재 무료제공
다. 교육후 전산원 교육장소에서 MOS시험 응시
라. 시험 불합격자 무료 응시 기회 부여(단, 과목당 1회에 한하여 수업의 90% 이상 출석자)
마. 불합격시 무료 재수강 가능
바. 과목당 증서로 확인(Core : 45,000원, Expert : 55,000원)
사. 최첨단 실습교육환경완비
아. MOS 공인시험센터 운영

8. 기타

가. 과정별 40~80명 선착순 마감합니다.
나. 수강생 미소지시 수강 절대 불가드립니다.
다. 접수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는 폐강 조치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산원 학사서비스팀(2260-3524, 3535, 김영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전산원 MOS 공인시험센터



중소기업 취업 어떻게 준비할까?

동대신문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대학생 중소기업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특집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하면 취업에 큰 도움

청년층 취업 위해 박람회·현장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는 26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청년실업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서 취업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호구지책(糊口之策)을 마련한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것이자 자신의 꿈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 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최근의 청년실업 문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부지기수인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노동부의 '2008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2008년 6월)'에 따르면 5인 이상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1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21만개의 빈 일자리가 있는 셈이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만 채워도 청년실업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도량치고 가재 잡는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격이다.

생각의 폭을 넓혀 중소기업을 보자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흔히 말하는 "자기 분수에 맞게 취업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성장된 우량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전망 있는 중소기업이 수없이 많을뿐더러,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기에 훌륭한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으로 드러난 기업의 덩치만 보거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만을 찾지 말고 기업의 내실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라! 그러면 취업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중소·벤처기업이 152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천억원 클럽에 가입한 기업들 중에서 조만간 매출액 1조원 시대를 열어갈 기업도 나올 것이다. 이런 스타 벤처기업들도 처음에는 모두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몇 년간 실무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배울 수 있을 뿐더러,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 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도전정신과 추진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사도 커가고 자신도 커가면서, 조직과 개인이 모두 Win-Win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취업 프로그램 활용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청년층이 우수중소기업의 비전과 가치, 성장가능성 등을 체험하는 '이공대생 혁신형중소기업 현장연수' 사업을 2008년도에 동국대를 포함한 62개 대학을 통해 시행중에 있다. 참가자만도 3,000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 10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광장 및 청계천일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자리 박람회'와 같은 성격의 일자리 박람회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면 좋을 듯하며 노동부의 워크넷(Work-Net)을 활용하여 구직원서를 접수하여 취직에 도전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특히, 대학 졸업후에도 3개월이상 미취업상태로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채

용패키지사업'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동 사업은 조합 및 단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인력채용 수요에 따른 직무교육 및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까지 1만 5,000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400여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 -> 인력지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소기업 취업 어떻게 준비하나

지난 11월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발표한 4년제 대졸 구직자 및 졸업예정자 7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졸 구직자들이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학점 3.5점, 토익 761점, 자격증 3.1개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학점, 토익, 자격증 등 모든 것을 다양하게 갖추면 좋겠지만 취업을 원하는 직종분야의 인턴경험,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 도전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자리 구하지 못해 기가 꺾인 젊은이들, 대기업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발버둥치는 젊은이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My Job)이 있고, 내일(My future)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그대들의 꿈을 펼쳐라!

홍진동 과장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대기업 VS 중소기업

자신에게 맞는 기업 선택이 중요

취업상담을 하다 보면 '베스트셀러 기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자주 만난다. 그들에게 왜 그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지 질문하면 '대기업 이니까'라는 답변이 돌아올 때가 많다. 취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면서도 정작 그 기업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혹시 대기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 중소기업에 대한 선부른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 쪽은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고 한 쪽은 가치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결국 기업 손해고, 지원자 손해일 수 있다.

필자는 취업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성공 취업한 졸업생들을 자주 접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이 내용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특징이나 기업 선택 시 참고하길 바란다.

대기업의 장점은 크게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 안정성, 체계성을 들 수 있다.

잘 알다시피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임금과 다양한 복리후생을 자랑한다.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안정성도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몇 년 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느냐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경기에 흔들릴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체계적인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한 부서에서 직원 한 두명이 퇴사한다 해도 크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은 바로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다양한 업무경험, 빠른 승진, 가족적인 분위기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직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는 종합적인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례로 대기업 인사팀은 채용업무 하나만 해도 신입, 경력, 해외채용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면, 중소기업은 채용은 물론 교육,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된다. 빠른 승진도 장점 중 하나다. 조직이 유연하기 때문에 능력만 있다면 경력 3-5년 차에 팀장급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다. 대기업에서 경력 3-5년 차가 대리 직함을 달고 실무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최고경영자·임원들과 가깝게 생활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빠르게 전달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각 기업들은 자사가 갖지 못한 장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특징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업규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취업을 했음에도 기업문화와 업무환경이 맞지 않아 갈등한다면 얼마나 큰 에너지 낭비인가. 자신의 능력과 성향을 고려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체크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간 내 실무능력을 쌓고 현장에서 뛰고 싶다면 중소기업, 하청이나 외주업체를 관리하면서 관리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대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소위 '스펙'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 자신만의 '베스트셀러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신길자 취업컨설턴트
언니의 취업가게 매니저



중소기업 창업으로 남보다 먼저 성공한
30대 CEO 이광석



중소기업을 통해 세계시장과 먼저 만난 20대
20대 디자이너 유미혜



중소기업에서 남보다 빠르게 승진한
30대 수석부장 허준혁

생각을 바꾸면 일자리가 보입니다 생각이 커지면 중소기업이 보입니다

무한 가능성이 열리는 곳 - 중소기업에서 당신의 꿈을 펼쳐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의 문을 두드려보십시오.
알찬 취업은 물론 당신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의 큰 세계가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당신과 당신의 미래사이 -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파워포인트

- 당신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습니다.
- 성공한 CEO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좋은 배움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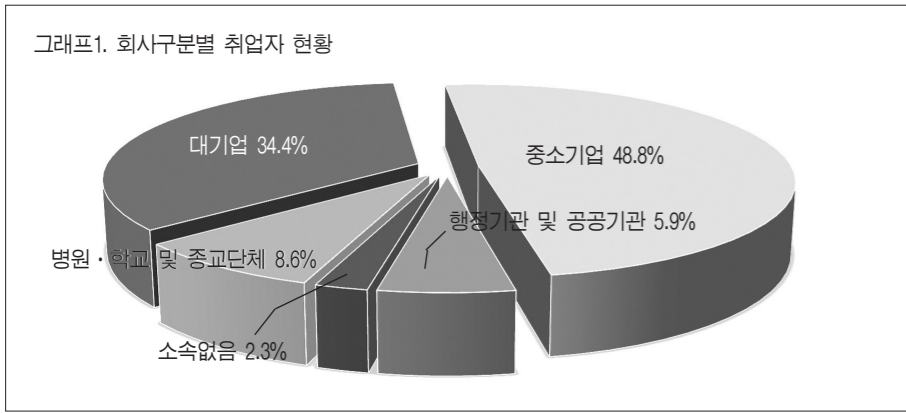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청이 함께합니다.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또는 www.smba.go.kr로 문의하시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드립니다.



목표는 '대기업' 현실은 '중소기업'

취업률 소폭 하락 ... 중소기업 취업률은 높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져



우리학교 취업률이 72.0%(2008년 4월 1일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73.1%보다 1.1% 떨어진 수치이다. 전체 취업률 뿐 아니라 정규직취업률 등 부분별 취업률도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에 따르면 올해 우리학교 취업통계조사 대상자 2,548명 가운데 정규직 취업자는 1,282명으로 5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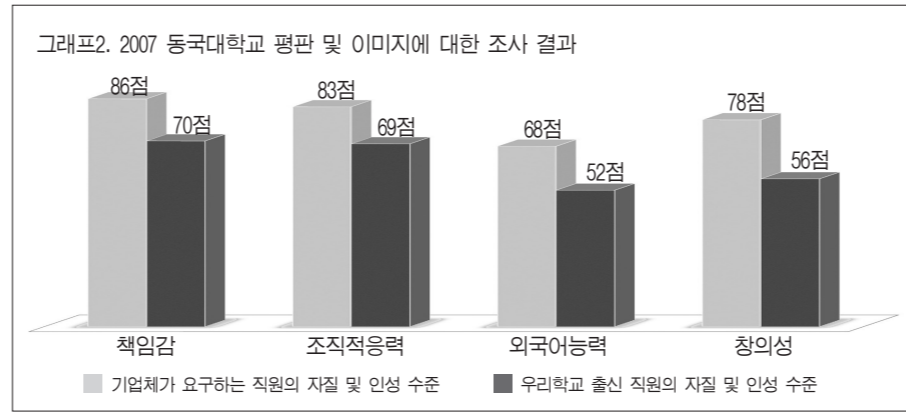
또한 회사규모 및 종류별 취업자 비율은 △대기업=34.4% △중소기업=48.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5.9% △병원 및 종교단체=8.6%로 나타나 아직까지 중소기업 취업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취업자 비율은 △남=75.4%, △여=67.8%을 보였으며, 정규직 비율은 △남=58.2%, △여=40.7%로

남학생의 경우 작년 대비 1% 정도 하락했으나 여학생은 1% 정도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다.

단과대학별 취업률을 살펴 보면 야간 강좌를 제외하고 불교대가 9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대(87.2%), 경영대(81.3%), 이과대(76.9%)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학과별로는 선학전공(18명), 정보시스템전공(4명), 불교미술전공(9명), 한국화전공(9명)이 100%의 취업률을 보였다. (괄호는 졸업자 수)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취업률에 대해 "전체적인 하락세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들의 채용규모 감소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은 취업률과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9월 발표한 '그룹별 취업률 우수학교'에도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전체대학을 졸업자 수로 나눈 가운데 B그룹(2,000 이상 3,000명 미만)에 속해 건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과 함께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정규직 취업률 부분에서도 같은 B그룹 중 '취업률 50%이상 60%미만' 학교 중 우수학교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평판도가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CS경영팀(팀장=박서진) '2007 동국대학교 평판 및 이미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책무감은 강하나 외국어능력과 창의성 등 직무수행능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준에 대한 우리학교 출신 직원의 경우는 책임감이 7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직 적응력, 기본 인성, 협동심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외국어 능력이 51.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창의성의 경우는 기업체의 요구수준과 우리학교 출신의 수준차가 22.3점으로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취업률 우수학교에 포함되긴 했지만 서울소재 주요 사립 대학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고 더욱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는 학생들 역량발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리 선임기자
viki26@dongguk.edu

취업지원센터 변민우 과장의 조언

“뚜렷한 목표·적극적 자세가 취업성공의 열쇠”

다년간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학생들의 취업상담과 고민을 듣고 있는 변민우 과장을 만나 이 같은 불황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하는 학생들의 유형과 취업준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업을 잘 하는” 학생의 유형이 있다면, = 자신의 목표설정이 분명한 학생들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한 학생들은 방학 때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동아리활동, 취업프로그램, 각종 해외탐방 등 스스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찾아다니며 4년을 알차게 보낸다.

또한 ‘어련’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학년 때부터 자신을 위해 준비한 학생들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곤

한다.

-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우선,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그 다음 취업지원센터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취업공지들은 물론, 각종 잡어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특장을 찾아 알아야 한다.

또,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취업 특장 및 프로그램은 한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에 개설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 물론 한번이라도 취업 프로

그램에 참가한 학생이 한번도 참가하지 않은 학생보다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겠지만 일시적인 특장 하나로 그 효과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특장을 여러 번 참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스스로 훈련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 1, 2, 3학년 때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4학년 때부터 취업준비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1,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의 결정하고 그에 따른 커리어를 쌓기 위해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1, 2학년 때부터 순차적인 단계를 밟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옆에 있는 학교 친구들을 경쟁상대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실제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이 경쟁상대가 아니며,



김나리 선임기자
viki26@dongguk.edu

2009년 제2기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선발 안내

- 장학내용**
- 연교 최대 \$50,000까지 3년간 지원 (등록비용 및 체재비 포함)
* 등록금 및 체재비는 지원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 금액으로 함
- 지원 자격 및 조건**
가. 본교 학부졸업생 및 09년 2월 졸업예정자 (경주캠퍼스 포함)
나. 지원 대상 학교의 09년 9월(가을학기) 박사 또는 석사사 포함 과정 입학 지원자 (석사과정 지원 불가)
다. 미국 내 분야별 대학원 전공 평가 순위(美 US News & World Report 순위가 5위 이내인 대학의 석사사 포함 및 박사 과정으로 지원한 자 단, MBA 및 로스쿨 과정은 제외함)
라. 평가기준: Engineering / Medicine / Education / Social Science & Humanities / Public Affairs / Fine Arts / The Science 총 7개 분야의 세부전공학과 순위
- 선발인원** : 0명
- 선발기준**
- 성적(학부/대학원 평점 및 CBT/GRE 점수) + 면접(전공, 영어 구술시험)
* CBT 점수 외 IBT 성적도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가.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지원 대상학교의 입학허가 예정서(해당자에 한함) 및 지원 확인서 1부
다. 본교(학부) 성적증명서(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라. CBT(또는 IBT), GRE 성적표 각 1부(우�효기간 이내 성적표 <CBT-2년, GRE-5년> 제출)
마.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바. 2인 이상의 추천서(소정 양식)
사. 지원 대상학교의 전공 평가순위 자료(www.usnews.com 참조)
- 접수처**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본관 2층)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동국시나리오공모전 개최 안내

◆ **사업목적**
가. CT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부여
나. CT중심의 대학(원) 교육 활성화
다. 학생들의 창작능력 증진

◆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가. 신청자격 : 2008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학부/대학원(석사) 재학생/수료생
나. 신청단위 : 개인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 12. 10(수) ~ 12.12(금)

◆ **공모부문** : 희곡, TV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 **제출기준 및 형태** : A4 규격을 중심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 **심사항목 및 배점** : 표현력 40%, 창의력 40%, 정서함 20%

◆ **수상작 발표** : 2009. 1.8(목) (본교 홈페이지 공모 및 개별 통보)

◆ **시상내용**

수상명	선발작품(수명)	시상내용	대상 특전
대상	각 부문별 1명 (총 5명)	각 400만원	졸업 후 1년 이내 본 대학원 입학사정
최우수	각 부문별 2명 (총 10명)	각 200만원	
우수	각 부문별 2명 (총 10명)	각 150만원	학급 지급등록금 50% : 1학기 지급
입상	각 부문별 6명 (총 30명)	각 30만원	

*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 **유의사항**
- 중복 지원은 불가함.
- 타인저작권 침해 작품, 제작사실이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상작품으로 선정된 후 해당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함.
- 제출된 서류 및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 및 운반과정에서의 분실 및 파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주최측에서 지지 않음.

◆ **제출물(신청서 접수 시 제출)** : 공모신청서 1부, 시나리오 1부

◆ **접수 및 문의처** : 영상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해화별관 1층), 02-2260-3762-3

◆ **첨부서류** : 공모전 신청서(각 부문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알짜배기 취업프로그램 ZOOM IN

❖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HRDP 취업캠프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자신감 및 리더십 함양은 물론 입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체함을 통한 재학생 취업 성공 및 기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에 3회, 겨울방학에 1회로 총 1년에 4회 실시하며, 3박 4일의 캠프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및 프리젠테이션 △리더십 및 팀워크 강화 △실질취업스킬 등으로 세분화 해 교육한다. 취업지원센터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HRDP 취업캠프에 다녀온 졸업자의 정규직취업률이 전체졸업자의 정규직취업률보다 약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4학년 여대생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분석과 토론을 통해 취업을 대비할 수 있는 '취업캠프'도 1월 중으로 열 예정이다.

❖ **동국 108리더스 프로그램**

동국 108리더스는 차세대 핵심 인재육성을 위한 108프로젝트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도덕성과 국제성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각종 리더십 특강을 비롯한 교육이 진행되며, 해외봉사활동도 참가하게 된다. 어학 성적 등 108리더스에서 제시하는 이수조건을 충족할 경우 동국108리더스라는 총장 인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초 2기를 선발해 해외봉사활동의 일정한 남겨둔 상태이며, 내년 3월에 5, 6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3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 **산학협동교육 직장체험(현장실습) 프로그램**

이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 장기근무(최대6개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기업에게 우수한 인재 육성 및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1학기부터 매학기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6월과 12월 전 후 모집기관 및 자격 등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자신 또는 전공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되고 소정의 지원금도 매월 지급된다. 많은 기업들이 직무경험이 있는 신입을 원하는 추세에 따라 이 같은 경험을 가진 학생이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 **모의 직무적성검사 시행**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기업 적성검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각 기업별 모의적성검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삼성그룹의 'SSAT'만 준비해 약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두산그룹 △SK그룹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업을 준비했다. 학기마다 한번 씩 진행하며, 기출문제 위주로 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취업관련 정규교과목 '취업실전특강', '진로설정과 경력개발'**

자신의 진로를 설정·개발하고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정규교과목에 관련 교과목을 개설했다. 매 학기마다 개설되는 '취업실전특강'과 '진로설정과 경력개발'이 그것이다. '취업실전특강'은 3·4학년은 대상으로 △대기업재용전략 △입사서류 작성전략 △대기업 적성검사 △면접유형별 준비와 대책 △신입사원의 성공적인 직장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팀티칭 위주로 진행한다. '진로설정과 경력개발'은 1·2학년 대상으로 △흥미와 적성검사 △진로설계 등을 위주로 구성된다.

❖ **실전 모의 입사 경진대회**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가능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것이다. '미래동공'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해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하고 1단계 서류 및 적성검사 2단계 면접 통해 최종선발까지 실제 기업의 입사시험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이것을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교에 들어오는 취업추진기회에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1:1서류 첨삭지도와 면접컨설팅을 실시한다. 매년 초 실시된다.

❖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커리어우먼아카데미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여대생 진로관리능력(career management skills)을 향상시키고, 여대생 진로 및 취업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특화 프로그램이다. 우리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 학기당 2회씩 1년에 총 4회 실시하고 있다. 1회당 3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1박 2일 합숙을 한다.

2008년 11월 현재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는 16기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신청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받는다.

❖ **World-Wide DNA (Dongguk New Alpha-girl) 프로젝트**

'World-Wide DNA'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방성에 그치는 특강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고, 우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12월에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휴·재학 중인 여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10명 내외를 선발해 이미지 메이킹, 보이스 컨설팅, 글로벌 매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학년별	주요 교육과정 개요	비고
공통	이미지메이킹(태도, 표정, 복장)	주말집중교육
과정	보이스 컨설팅, 글로벌 매너	종합캠프 실시
1학년	개별 포트폴리오 작성	각종 검사 실시
2학년	글로벌 프레젠테이션 교육	영문 자료작성 및 발표교육
3학년	글로벌 멘토링/인턴십 지원	관련분야 산배 연결/글로벌 인턴십 과정
4학년	책임교수 지도제(1:1 연결)	여대생 전문 취업 컨설팅

❖ **'여성리더와의 대화' 강좌**

21세기 여성리더들에게 '일 아니면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형태보다는 가정과 사회, 개인의 내적인 진실성 등 조화로운 삶의 성취가 더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좌는 현재 이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여성리더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학생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에서는 각 분야의 여성리더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다른 여성들에게 좋은 역할모델이 되도록 한다. 또한 여성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관리를 통해 균형 있는 삶을 이루는 방법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했을 시에는 1학점(P/F)이 부여된다.

정리=김나리 선임기자, 감지해 선임기자

중소기업 현장 연수 체험 후기

중소기업 현장연수 체험 소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중 시행된 중소기업 현장 연수 체험 후기를 소개한다.

중소기업 시행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학습 안내

- 사업목적** :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대한 강의, 우수 중소기업 견학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취업을 촉진
- 사업내용**
 - ▶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3주) : 4년제 이공계 대학생이 방학기간 중 3주간 혁신형 중소기업을 연수(40만원 지원) - 전문교육기관의 중소기업 위탁교육 지원
 - ▶ 성공 중소기업 CEO 대학강좌 개설(학기) : 4년제 이공계 대학에 중소기업 CEO 강좌를 개설(800만원 지원) - 성공 중소기업 CEO 강좌 참여대학 우수중소기업 탐방 및 전문전시회 참관 지원
- 참가신청 및 문의**
 -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 담당부서에 신청
 -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어

연수기업 : 컴에이지 유비투비

▲ 연수기업 소개
컴에이지 유비투비는 기업간 전자 상거래를 통해 기업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기업간 글로벌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의 선두에서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기업간 거래의 중심인 B2B사업을 펼치고 있다.

▲ 연수소감
현재의 기업들은 성적이 우수한 인재보다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원하고,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보다는 업무 능력이 이미 검증되고, 경험이 많은 경력 사원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만큼 최근의 경험을 쌓는 것은 대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 3학년인 지금 나는 이번 연수를 통하여 신입 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업체에 발전에 동조할 수 있겠다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한 달이라는 연수 기간 동안 크진 않지만, 나름의 목표들을 해쳐나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등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하면서 나는 단순히 그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고, 보다 빨리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수를 하면서 느끼게 된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팀워크 즉, 부서원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기업체는 일

체형 조직이 아닌 프로젝트 별로 파트가 나뉘어 있는 조직형태이다. 그만큼 같은 프로젝트를 해 나감에 있어서 팀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연수기간 초반의 적응기간 중에는 부서원들과 나와의 약간의 이질감 때문인지, 일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 부서원들이 나의 특징이나 장점을 잘 몰라서 어떤 일을 할때야 할 지 망설인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섣불리 물어보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 등은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서로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지만,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그 회사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스케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근 시간 9시부터 퇴근 시간 6시까지 똑같은 시간 안에 해내는 일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그 일을 해 나가는 양과 질은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승진을 한다거나 혹은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을 키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프로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팀원들 사이에 숨어서 일하는 시늉만 하면, 자기 스스로나 단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연수기간 동안 한 부서의 직원이지만,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나 하나를 독립된 기

업체 하나로 생각하였다.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 내가 하는 일들은 비록 작은 일들이지만, 다른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받쳐주는 일이고, 결국엔 그런 기초들이 있어야 커다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회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긴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짧은 시간도 아니었다.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었지만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내가 이 회사에 집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직원분들의 도움과 격려덕에 자신감을 얻었고, 더 많은 일들을 하며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같이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법을 배웠다.

이번 중소기업 연수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힘든 일을 헤쳐나가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이었다.

비록 큰 벽에 부딪쳐 자신감을 잃는 경험도 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법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지금 얻은 자신감을 마음에 새기며 매사 임할 것이다.

이십 년, 삼십 년 후에 높은 곳에서 웃고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고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컴에이지 직원 분들 특히 셸리유 소장님과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동국대학교에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김승연

(정보산업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3학년)

둘

모든 사원 소속감 대단 ... 중소기업 편견 사라져

연수기업 : 바이오그랜드

▲ 연수기업 소개
(주)바이오그랜드는 국민건강복지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며, 두뇌개발 등 인간의 지적 발전을 위한 연구를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다.

(주)바이오그랜드는 기억력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탁월한 효과의 소재 연구 10여년의 성과로 '피브로인 BF-7' 을 개발하였다. 이 천연소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개별인증형으로 '기억력 개선' 효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 연구성과가 국가적으로 인정되어 최근 3년간 과학기술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100대 과제에 선정되었다.

▲ 연수내용

△기업에 관한 설명 및 제품 소개
△기업 홍보 방안 모색(브레인 스토밍)
△기업 회의 및 세미나 참석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 시약 파악 및 정리 △cell배치 만들기 △취직시험을 통한 CNT(탄소 나노 튜브)의 효능 알기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바이오그랜드에서 남양유업과 공동으로 하는 연구 임상시험 보조

▲ 연수소감

인턴경험을 통해 직장문화를 배우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품질관리와 생산관리 부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었지만 바이오그랜드는 OEM생산을 통해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어서 품질관리와 생산

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OEM에서 어떤식으로 생산과 품질관리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관리 내용에 대해 습득할 수 있었다. 대기업의 이미지와는 달리 사원분들의 친밀도가 높고 모든 사원이 하나 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한 끝까지 회사와 함께 하겠다는 소속감이 대단했다. 그리고 사원들이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해부실験이나 회사 블로그 관리 등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식견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손모아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4학년)

셋

전문분야에 대한 시야 넓히는 경험

연수기업 : 세창인스트루먼트

▲ 연수기업 소개
세창인스트루먼트는 계속기 전 자상점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및 고도의 관련 기술 정보가 필요한 사업특성을 가진 관련 제품군의 판매를 위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색에 맞게 자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문생산 체계를 갖추으로써, 재고량을 줄이고 수율을 예측해서 적기에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확인되었다.

▲ 연수내용

△1주차=ERP 교육, Laview 실습, 부서 영업교육, 물품입고 및 배송업무
△2주차=전화업무, Laview 실습, 물품입고 및 배송업무, 도급팀 회의 및 출장업무 보조
△3주차=Laview 프로젝트조사, 물품입고 및 배송업무, 전화업무
△4주차=Laview 프로젝트 마무리, 오버츄어 작업,메뉴얼제작, 물품입고 및 배송업무

▲ 연수소감

한달이라는 기간이 회사 쪽에서나 학생들 쪽에서나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장의 관심 어린 배려로 Labview라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고 고급장비들도 보고 이해함으로써 전문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시리얼통신 VISA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원인은 데이터 통신의 관한 자료만 찾고 데이터 전송 포맷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었고 어려웠지만 실패는 실패였고 이는 공학도로서의 실패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전공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유연한 사고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직원 분들의 지속적인 외국 기업들과의 접촉을 보면서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고 피곤했던 일들, 고민했던 힘든 일들보다는 직원 분들과 식사하거나 회식을 하면서 웃고 즐겼던 일들이 많이 생각한다. 덕분에 평소 자신감이 부족했었는데 여러 사람들과 활동하면서 조금은 밝고 자신감 있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좀 더 심화된 지식과 좁았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졸업 후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백선희

(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넷

'회사'라는 세계 체험

연수기업 : 세창인스트루먼트

▲ 연수내용
△세창인스트루먼트(주) ERP 구조 파악 △세창인스트루먼트(주) 코팅두께 측정기 기술 자료 습득 △Automation Dr.Nix사의 홈페이지에서 Application관련 기술 서류 번역 △3점 5S 교육, 세창 CASH 교육 △주문물품 포장 및 발송 △사내 ERP 물품 등록 △세창인스트루먼트 영업 교육(외자기재, 내자기재) △DM발송 업체 분류 및 업체별 정보를 ERP에 등록 △표준 시편 제작 및 라벨 테이핑 △매뉴얼 제작 △인고 물품 바코드 등록 및 장고 정리

▲ 연수소감

처음에 이 곳에 왔을 때 연수생생이 있고 내 컴퓨터가 있고 내 책상이 있다는 것에 솔직히 놀랐다.

연수생일 뿐이고 고작 한 달 남짓 있을 곳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연수생인 나를 알아도 되는 존재가 아닌 필요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세창인스트루먼트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듣고 간다.

회사라고 하는 막연한 단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이 어렵건, 쉽건간에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임현욱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좌 안내

아동미술심리지도사 겨울방학 특강 안내

미술치료란, 매체를 경험하며 직업과정에서 내면과 무의식을 탐색하고 내면적 갈등을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동의 미술적 심리발달을 연구하여 나아가서는 노년기까지의 전 인간의 문제적 갈등을 예방, 치유하며 자격증도 준비합니다.

■ **교육기간** : 2008년 12월 20일(토) ~ 2월 28일(토)
7.5주 각 강좌별 45시간

■ **강의시간** : 초급반 : 토요일 10:00 ~ 17:00
중급반 : 수요일 10:00 ~ 17:00
※ 초급반, 중급반 동시 수강 가능합니다.

■ **수강료** : 과목당 330,000원

■ 특기 사항

- 18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격취득요건

1. 본 과정 180시간 이수자로 자격기본법 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문대학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접수기간** : 2008. 12. 1(월) ~ 12. 13(토)

■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계좌입금 후 전화
(T.2260-3730/3729)
(신한) 계좌번호 140-002-017211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겨울방학특강 안내

개설강좌명	담당교수	강의시간 및 요일	수강료	개강일 강의기간
타로카드	김동완	월, 목 오전10시~12시	250,000	12월22일(월) 4주 16시간
육효	김동완	월, 목 오후1시~3시	250,000	12월22일(월) 4주 16시간
기문정명학초급특강	김기정	수 오전10시~1시	100,000	2008.12.24(수) 8주
육임초급특강	이우산	수 오후2시~4시	100,000	2008.12.24(수) 8주
육임중급특강	이우산	화 오후2시~4시	100,000	2008.12.23(화) 8주
육임고급특강	이우산	화 오후6시30분~8시30분	100,000	2008.12.23(화) 8주
기분한문 특강	이한성	화, 수 오전10시~1:00	100,000	2008.12.23(화) 5주
선무도 특강	헤각스님	목 오후7시~9시	100,000	2008.12.18(목) 8주
렌즈로 본 세상 (사진촬영반)	이성만	월 오후2시~4시	100,000	2008.12.22(월) 8주
참선수행	진성스님	화 오후2시~4시	100,000	2008.12.16(화) 9주

▶ **접수기간** : 2008. 12. 1(월) ~ 12. 13(토) 오전 9시~오후5시
▶ **접수방법** :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또는 학사운영실 직접 신청
▶ **수강료수납방법** :
가. 계좌이체 (신한)140-002-017211 (예금주:사회교육원)
나. 카드수납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문의처** : ☎ 02-2260-3730
▶ **사회교육원홈페이지** : http://edulife.dongguk.edu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제7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모집

1. **과정개요**
본 과정은 늘어나는 한국어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의 이론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국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정 이수 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국어 기본법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전형일정**
○ 원서 접수: 2008. 12. 1 ~ 12. 10
○ 합격자 발표: 2008. 12. 11.(목)(인터넷 및 개별통지)
○ 등록 기간: 2008. 12. 12(금) ~ 12. 17(수)
○ 수업 기간: 2008. 12. 22(월) ~ 2009. 1. 23(금)(09:30 ~ 17:00, 총 122시간)

3. **등록 방법**
○ 전형료: 3만원(원서 접수 시)
○ 등록금: 100만원(교재비 포함)
※ 본교 졸업 동문, 외국인, 전·현직 한국어 교사: 등록금 20% 할인(증명서 제출)
※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등록금 40% 할인(재학 증명서 제출)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방문·우편 접수
서술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해화관 1층)
○ 문의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담당자
전자메일 klt@dongguk.edu 전화 (02)2260-3472

4. **등록 자격**
○ 전년대졸 이상자 또는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전·현직자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5. **제출서류**
○ 본원 소정 지원서(지원서를 낼 때 전형료를 내야 함)
○ 최종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재직(경력) 증명서(해당자)

※ 본 과정 이수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성적 우수자에게 본교 한국어교육센터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 수여
※ 본원 강사 채용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및 카페를 통한 강사 모집 광고 제공
※ 본 과정 이수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입학 면접 시 가산점 부여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중소기업 바로 보기’ 특집 좌담회

눈을 돌려 중소기업 바라보면 취업의 문 ‘활짝’

좌담자 : 한명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원)
 김중윤 (취업지원센터 직원)
 김승연 (산업시스템공 3)
 김승희 (중문 3)
 김태영 (경제 3)
 김현선 (행정 3)

사회 : 최미혜 (동대신문사 선임기자)
일시 : 2008년 11월 25일 오후 6시
장소 : 동국미디어센터



한명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를 따지기보다 똑같은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중소기업 바라봐야”

▲ 사회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걱정하면서도 채용기회가 있는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자리는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중소기업이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김중윤 = 학생들이 취업상담을 할 때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 연봉이 높은 기업, 복지여건이 좋은 기업을 꼽는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만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입장이다.

학생들의 입사 목표는 우선적으로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 김태영 = 나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이다. 어느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인지를 고려한 다음 연봉, 고용지속 가능성 등을 생각한다.

▲ 김현선 = 기업인지도나 연봉도 중요하지만 자기계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기보다 입사 후에도 얼마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김승희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명문대를 선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근무조건, 직원들에 대한 복지제도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는 인식 또한 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 한명수 =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자기 자신의 비전, 적성, 취업목적 등을 고려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학생들이 취업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간과돼 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 90년대 초 채용 규모가 23~24만 명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8만 명 정도로 점차 채용 규모가 주는 상태다. 반면, 중소기업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비전과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직장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사회 = 지금까지 오고 간 이야기만 보아도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다.

▲ 김태영 = 학생들 스스로가 가진 부정적인 인식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학생들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똑같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이 있다면,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취업 사실이 자랑거리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어디 가서도 내세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설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중소기업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기업을 선택한다.

▲ 김승연 =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생각

할 때 대기업과 비교해서 생각하게 된다. 일단 규모면에서 대기업보다 작은 규모이고 규모가 작다 보니 연봉도 적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된다.

▲ 한명수 = 우리 사회는 규모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어떻게 보면 쉽게 바뀌기 힘든 부분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소기업’ 하면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이는 70~80년대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조직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미지가 어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보니 부정적인 인식이 이어져 오는 것 같다.

▲ 김중윤 =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회사의 부도 위험이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대기업은 최소한 내가 일하는 동안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본규모가 작아 언제 파산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가 되던, 최소한 내 직장이 문

도 학교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라도 채용 설명회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학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연히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 연수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무에서 적용시키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 좋겠다.

▲ 김중윤 = 참가모집 공고의 시기상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인데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 즈음에는 방학계획을 미리 세우는데 선발 공고가 나는 시점은 한창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도 본인의 일정과 맞지 않아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선발시기를 앞당기면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태영 =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중

연스럽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처음 출근하면 어색할 수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선배라고 편하게 부르라고 하고 일을 할 때도 친형처럼 많이 챙겨주셨다.

체험하기 전에도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체험 후에는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대기업도 좋지만 취업준비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대기업과 건설한 중소기업을 함께 고려해 볼 것 같다.

▲ 한명수 =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경쟁도 치열하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많고 근속연수도 짧기 마련이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조직의 부속품’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대기업에서는 큰 조직 속에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기업에 큰 힘이 되어 스스로 기업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성과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다.

▲ 김중윤 = 중소기업이 살아나려면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우선 우수한 인력이 많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취업을 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고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우수한 인재 채용하려는 기업도 함께 노력한다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여러 많은 우수인력이 채용되면 학교입장에서는 취업률이 상승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도 여기에 일조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대학생 취업난’만 연일 보도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도 우수인력이 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 한명수 =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부족한 인력은 2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졸업자 중 실업자가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취업난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김태영 = 건설한 중소기업이라면 취업할 때 고려하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나 재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활용되면 무조건적인 편견은 줄어들 것 같다.

▲ 김승희 =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대기업만 바라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면 복지환경이나 근무조건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할지 모르지만 업무 성취도는 높을 것 같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봤을 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 김현선 = 중소기업이 지금의 취업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명수 = 대기업이나 따지기보다 똑같은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을 바라보고 진정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장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정리=최미혜 선임기자
 lmissionaral@dongguk.edu



김승희(중문 3)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근무환경은 다소 열악해도 업무성취도는 높을 듯”



김중윤(취업지원센터 직원)

“개인적·사회적 인식 바뀌고 우수인력 유치 위한 중소기업 노력 더해져야”

중소기업,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인식 개선 학생들도 ‘무조건 안좋다’는 편견 버려야

을 달아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 김현선 = 주위 친구들의 경우만 보아도 ‘내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가야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연봉, 열악한 복리후생과 근무환경 등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취업할 때 중소기업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고려하는 친구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 김승희 =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후배들에게 입사 전략 등을 알려주러 오는 선배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한 선배가 와서 어떻게 취업준비를 했는지 후배들에게 들려주면 후배들은 ‘나도 대기업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 김태영 =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찾아 본 적은 없다.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스스로도 대기업을 선택할 것 같다.

▲ 사회 =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중소기업 체험학습’을 비롯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알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김승연 = 지난 여름방학때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원흥관에 설치된 홍보배너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관심이 생겨 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중소기업 쪽에서

소기업 규모와 근무환경이 다양하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 지원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아직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 김중윤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명, 근무지, 하게 될 업무는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본인에게 될 업무를 알기는 어렵다. 방학동안 3~4주의 시간동안 연수에 참가하게 되는데 체험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다.

▲ 한명수 = 학생들이 연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일이다. 지금도 수도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활성화 되고 있는 이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많다.

연수를 마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체험 전 ‘중소기업이 싫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학생들 중 90%에 가까운 학생들의 ‘무조건 싫다’는 인식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취업할 때 중소기업도 고려하겠다’라고 개선된다.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 사회 = 아직 학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분명 장점이 있을 것 같다. 나이가 중소기업이 지금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는 없을지 들어보고 싶다.

▲ 김승연 = 연수를 통해 중소기업에 일하며 느낀 점은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30여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일할 때, 밥 먹을 때, 휴식 시간까지 함께 하다 보니 자



김태영(경제 3)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기업은 이미지 홍보에도 더욱 신경써야”



김승연(산업시스템공 3)

“중소기업 연수 통해 중소기업만의 장점 발견”



김현선(행정 3)

“입사 후 자기계발 여부도 충분히 고려 할 것”

'살인의 추억' 속 '얼굴'에 주목하다

다카시 교수, "과거의 상처, 영화화한 대표적 사례"



▲ 교토 조형예술대학 다카시 교수

넓은 품에서 뱀두기를 잡고 있는 한 시골 소년의 얼굴.
박 형사 역의 한 남자가 범인을 주시하는 듯한, 그의 얼굴.
얼굴로 시작해 얼굴로 끝나는 영화 '살인의 추억', 이러한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 다카시 교수의 초청세미나가 27일 문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다카시 교수는 일본에서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살인의 추억' 평론은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한국의 대표적 영화 잡지인 '씨네 21'에 기고된 바 있다.

다카시 교수는 "올드보이와 같이 작품성 높은 한국 영화의 제작은 경제 불황 시기와 거의 시기를 함께하고 있다."며 "1929년 대공황 속에서 황금시기를 맞았던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하다"는 말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더불어 경제 불황 속에서 한국영화의 열풍이 이뤄졌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도 가장 해체, 절망 끝에 자살을 시도하는 월급 생활자 등 불행한 모습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하사탕'의 주인공 '영호'가 경제 불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철교를 달리는 기차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다카시 교수는 98년 이후 한국영화가 빠르게 산업화를 이룬 한국 역사의 상처를 이야기화 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았다. '살인의 추억' 또한 과거 한국 사회의 상처를 이와 같은 전략으로 영화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영화에서 박 형사 역의 송강호가 시체를 찾기 위해 좁고 어두운 터널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어두운 과거를 들여다보는 모습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옹의자 박해일과 이형사역의 감성경이 싸웠던 장소, 큰 터널은 치료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다카시 교수는 범인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 '살인의 추억' 중 마지막 부분인 '박 형사 역의 송강호 얼굴'에 주목했다. 이러한 얼굴 클로즈업은 흥악범이 자신을 포함한 '보통 얼굴' 중 하나로 '현재'에 살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시골 아이들이 시체를 구경하다 눈발을 구르는 모습을 등장시키는 등 양질의 웃음을 도처에 끼워 넣는 연출이 가장 돋보였다고 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초청세미나는 '살인의 추억'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아픔과 함께 바라봤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이상문 동문, 새 소설집 <이런 젠장맞을일이> 펴내

해체된 가정 속 중년부부의 애증과 화해 다뤄



이런 젠장맞을 일이

지은이: 이상문(국문 74 출) / 펴낸곳: 김&정

소설가 이상문 동문이 신작소설집 '이런 젠장 맞을 일이'를 펴냈다. 이 동문은 1983년 '탄흔'으로 등단한 뒤 4권의 창작집과 '활색인' 등 11편의 장편소설(총 32권)을 펴내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펴고 있는 중견 작가. 5년 만에 펴낸 이번 소설집에는 표제작과 함께 '아육된장국 끓이기' 등 2편만 실렸을 뿐이다. "늬름, 죽은

보다 녹슨 삶이 두렵다"며 펴낸 이번 작품집은 그만큼 정제돼 있고, 건전한 늬름으로 가는 중년소설, 부부관계 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 주목된다.

표제작은 사별한 아내와의 정을 새김질 하며 홀로 사는 중년 만화가 이야기가 우선 사부곡(思婦曲)처럼 절절히 읽힌다. 거기에 후배와 주인공 노모의 부부 간의 갈등과 회한이 가지를 쳐가며 이야기를 확장, 심화시켜간다. 남편의 외도 다 견뎌내다 시한부 병에 걸렸어도 억연히 살아 아무 원망 없이 죽어간 아내를 그리는 주인공.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바람 피워대는 남편에 기대기 싫다며 친정으로 가는 아내 소식을 듣고도 재혼에 설레는 후배. 술집 여자와 도회의 신접살림을 꾸려 나가려다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 이야기를 숨기고 50년간 가족을 꾸리다 8순 다 된 나이에 새 동반자와 살려는 노모의 이야기가 표제작이다.

'아육된장국 끓이기'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 사회지도층 인사가 된 부부 이야기. 양녀로 들인 딸이 아내의 유학시절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난 딸임을 알고도 감추다 임종에 이르러 편지로 아내를 안심시키려 밝히는 속 깊은 남

편의 이야기가 읽는 이의 가슴을 친다. 이렇듯 두 작품 모두 중년 작가의 체형에서 우러난 부부간의 절절한 이야기가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게 한다. 거기에 스토리 메이커 답게 여러 이야기를 곁들이며 지금 우리 사회 일반의 부부관계를 속 깊게 살피게 하며 읽을 맛을 더해준다. 무엇보다 아담과 이브 태초의 부부도 끌어들이며 부부관계를 원초적, 일반적으로도 살피고 있다.

작품집 해설에서 문학평론가 장영우 동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포용의 완숙하고 깊이 있는 정신세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가정이 속절없이 해체되고 있는 지금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꼭 채 체험의 중년으로 묻고 있는 이 소설집은 신세대와 구세대에 끼여 부대끼는 중년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포용과 예의를 제시하고 있어 귀하게 읽힌다.

이 경 철

문학평론가
전 중앙일보 문화부장
국문 81출업



미리보는 학술대회

▶ '자아'에 대한 불교 및 다양한 학문 입장 조망

일시: 12월 13일 (토) 9시 30분
주제: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주최: 밝은 사람들

불교와 상담 관련 학회 '밝은 사람들'의 제 6회 학술연회가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3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연회는 총 7개의 주제 발표를 포함하여 '자아'에 대해 조망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happybsal@paran.com에 하면 된다.

- 좌장: 김중욱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 발표1 초기불교: 정준영 교수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불교학과)
- 발표2 중관·유식불교: 허인섭 교수 (덕성여대 철학과)
- 발표3 선불교: 김진무 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발표4 서양철학: 박찬국 교수 (서울대 철학과)
- 발표5 심 리 학: 권석만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 발표6 정신의학: 김중주 원장 (김중주 신경정신과전문의원)
- 발표7 생물·면역학: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명상을 통한 심리 치료의 활용분야와 분석

일시: 12월 6일 (토) 1시
주제: '명상과 심리치료'
주최: 한국명상치료학회

한국 명상 치료학회의 제 4차 학술 세미나가 '명상과 심리치료'라는 주제로 오는 6일 1시부터 덕암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다양한 명상 및 심리치료와 관련하여 3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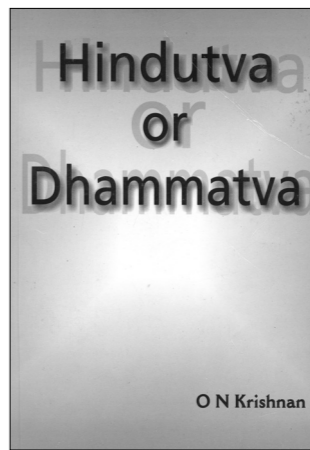
제 1발표는 'MBSR과 인지행동 명상의 비교고찰'에 대해 동국대 선학과 김말환 강사가 발표한다. MBSR이란 '마음챙김' 명상과 서양의 철학적인 행동과학을 체계적으로 접목시킨 스트레스 감소 전문 8주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2발표는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상담학과 인경스님이 '유가행파의 명상관법과 인지치료의 심상작업'에 대해 다룬다. 제 3발표는 '태고에서의 명상과 미술치료'라는 주제로 남서울 대학교 유현자 강사가 맡는다. 이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1만원의 참가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명상상담 연구원(02-2236-5306)으로 하면 된다.



Hindutva or Dhammatva (힌두교나 불교나)

김호성 교수의

비판적 책 읽기



Hindutva or Dhammatva (힌두교나 불교나)

지은이: O.N Krishnan

종교간의 갈등이 배후에 놓여있다. 힌두교와 다른 종교의 갈등의 뿌리에는 '인도'라는 나라의 모습에 대한 이념의 차이가 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인도 = 힌두교의 나라'는 아닌가?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심지어 위협까지 있다. 인도는 힌두교도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의 나라이다. 그런데,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인도 = 힌두교의 나라'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힌두트바(Hindutva)라고 부른다면서, 성국화(聖國化) 운동을 해왔다. 그들 눈에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첫 번째 가시고, 간디주의(Gandhism)가 두 번째 가시다. 마하트마 간디 역시 인도는 힌두교만의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모든 종교가 공생(共生)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저자 크리쉬난, '힌두 근본주의자'들에게 다원주의 인정하는 '담바트바' 주목할 것 제안

독립 이전부터 존재해 오면서, 이슬람교와의 사이에 분열의 골을 넓혔고 분리독립을 초래했다. 이후에도 정치적 힘을 가지면서 '인도의 힌두교 국가' 화를 즐기자(폭력적으로까지) 행해오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힌두트바 이데올로기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서이다. 철저히 벗기고 있다. 제목의 '힌두트바'는 힌두교 원리주의의 내지 힌두적 정체성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내가 굳이 '힌두교'로 옮긴 것은, 저자가 힌두트바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토대인 힌두교 자체까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나보다 과격하다. 나 역시 힌두교를 비판적으로 말했으려나, 어디까지나 비힌두교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윤리와 관련해서이지 종교적 신념의 영역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였다. 그런데, 그는 그 부분까지 비판한다.

"힌두트바에서 벗어나 담바트바에 의지하라!" '담바'는 불교의 언어이다. 힌두교에서는 '다르마'로 말한다. 힌두교와 달리 불교는 비폭력적이고(힌두교는 '정의의 위한 폭력'을 옹인한다),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이 간디주의와 공유하는 측면이라고 본다. 그래서 담바트바는 종교의 탈정치화이자 정치의 탈종교화이다. 종교로부터 벗어난 정치, 이는 정교분리이자 세속국가론이다. 인도는 그렇게 세속국가로 독립하였다. 그럼에도 그것이 위협받았던 것이다. 저자는 그 '인도 = 세속국가'를 지키고 싶어한다. 나도 '한국 = 세속국가'를 지키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고, 번역도 하고 싶다.

想像예산, 2008-2 동국 글쓰기 공모전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3회 동국 우수보고서 공모

자 격: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공 모 대 상: 2008년 1학기/2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단, 졸업논문, 외국어로 작성된 보고서 및 제1, 2회 공모 제출 보고서 제외

시 상 부 분: 감상문(독서감상문,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연구조사보고서(학술답사, 연구조사) 일반보고서(그 외 일반)

시 상 내 역: 최우수상 3명(부문별 1인) 각 300,000원 우수상 6명(부문별 2인) 각 200,000원 장려상 15명(부문별 5인) 각 100,000원

*외국인 유학생 부문 시상: 동일한 공모주제로 우수상 1인(200,000원)/ 장려상 3인(각 100,000원)

제1회 '여성과 딸각발이' 중구 문화지리 글쓰기 공모

자 격: 동국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교강사

공 모 주 제: 남산/동국대학교(원고지 50매 내외 또는 A4 5-8매 내외 자유 형식 / 사진 2-4장)

신청기간: 2008년 10월 1일 ~ 12월 17일
응모방법: 글쓰기센터(동국관 M동 4층)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교직원, 교강사의 경우 '허성과 딸각발이'에 한하여 이메일 신청 가능)
결과발표: 2008년 12월 23일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 의: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전화번호: 02)2260-3380

기 타: - 제출 원고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우수 보고서의 경우 강좌명, 담당교수명도 기입)] - 선정된 글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추후 글쓰기 센터에서 발행되는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http://writing.dongguk.edu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동국 UCC 문화콘텐츠 공모전

동국대학교 총무로 영상문화사업단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참신하고 흥미로운 문화콘텐츠 발굴 및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융합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콘텐츠 창작인력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중 C&T의 공동주관으로 [동국 UCC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단위
신청자격: 국내/외 대학(원)생 및 일반 신청단위: 개인 또는 단체(원인율 수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08.12.17 ~ 2008.12.19 (참가신청서 접수시 함께 작품 제출)

출품 부문

◎ 문화콘텐츠 서비스 아이디어 부문
- IPTV, 모바일, 인터넷 등의 뉴 미디어 산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 부문으로,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유통까지 OSMU(One Source Multi Use) 시스템에 기반을 둔 유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부문

◎ 캐릭터 · 영상 · 스토리텔링 부문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순수 창작 디지털콘텐츠로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영상콘텐츠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캐릭터 디자인 및 CG, 플래시, 동영상, 그리고 스토리텔링 부문

◎ 융합형 기술을 활용한 U-Book 콘텐츠 제작 부문
- 2D CODE로 연계된 종이책 출판물과 전자출판물 제작을 통하여, 멀티플랫폼, 콘텐츠 컨버전스의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유티쿼티스 북 콘텐츠 제작개발 부문
- 본 부문 참가 관심자에 한하여 2차에 걸쳐서 무료로 '2D CODE 연계기술 활용 U-BOOK 제작 과정 및 사례' 기술 세미나 특강 예정
*1차 세미나 일정: 2008년 10월 29일 저녁 5시 동국대학교 문화관 제3세미나실
*2차 세미나 일정: 2008년 11월 말 예정으로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시상내역

구분	입상자	상금	기타
대상	전 부문	1명(팀)	3,000,000

최우수상	문화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부문	각 2명(팀)	1,000,000
최우수상	캐릭터 · 영상 · 스토리텔링 부문	각 2명(팀)	1,000,000
	U-book 콘텐츠 제작 부문	각 2명(팀)	1,000,000
우수상	문화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부문	각 3명(팀)	500,000
	캐릭터 · 영상 · 스토리텔링 부문	각 3명(팀)	500,000
장려상	U-book 콘텐츠 제작 부문	각 3명(팀)	500,000
	문화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부문	각 5명(팀)	100,000
장려상	캐릭터 · 영상 · 스토리텔링 부문	각 5명(팀)	100,000
	U-book 콘텐츠 제작 부문	각 5명(팀)	100,000

※수상작 발표
2009년 1월 10일, 동국대학교 총무로 영상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참가신청 방법 및 문의처
◎ 동일한 또는 팀이 다른 부문에 중복 참가 가능
- 참가신청서를 각 해당 부문 형식에 맞춰서 각각 제출

신청서 배부
- 동국대학교 총무로 영상문화센터 홈페이지(www.dongguk3.ac.kr)에서 참가신청요령 및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부

신청서 접수 및 작품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와 함께 작품 제출
- 부문별 작품 1점 제출(제출기한 당일 도착받까지만 인정)
- 우편(택배)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우)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82-1 동국대학교 총무로영상센터 206호 총무로 영상문화사업단 (문화콘텐츠 R&D센터) '동국 UCC 문화콘텐츠 공모전' 담당자 앞
- 문의: 02-2264-3696(문화콘텐츠 R&D센터)

기타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ongguk3.ac.kr)를 참조하세요.
후원: 다중 C&T,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자출판학회

동국대학교 총무로 영상문화사업단, 다중 C&T

달하나천강에

컨버전스 시대, 건설 전문인의 역할

다원화되고 국제화되고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융합적인 사고와 다원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대사회에서 건설 산업이 인문사회 경영문화 그리고 건설 기술, 정보화 가능 등과 융합되어 컨버전스(Convergence) 건설 산업을 이룰 때 그 효용성은 높지 않겠는가.

컨버전스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Keyword를 Culture, Brand, Creation, Emotion으로 하여 건설 분야의 변화를 직시해 볼 수 있다. Culture는 하드웨어적인 환경의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조직의 문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Brand는 유형적 물리적 자산을 통하여 무형적 자산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Creation은 신기술과 정보화에 의해서 가능해 된 새로운 공간과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Emotion은 사용자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감성적 지식과 기술을 자생적으로 감응하는 측면에서 건설 분야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다.

이에 건설 전문인이 컨버전스 사회의 다양한 전문분야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때 건설 산업에서 예견될 수 있는 역할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건설전문인 역할 변화로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제시해 본다.

도시 건설 엔터테이너

도시 건설 엔터테이너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판매-엔터테이먼트 복합개발에 요청되는 개발 방법, 계획 및 설계기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 건설 엔터테이너는 공공으로 하여금 중심지가 갖는 공익적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도시재생 및 신도시 복합 개발지의 조성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서울시 및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과 신도시 복합 개발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있어서 도시 건설 엔터테이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복합 엔터테이먼트 개발이 도심재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특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사회적 활력을 증진하고, 프로젝트 개발자와 공공 부문 모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복합 엔터테이먼트 개발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심지역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엔터테이먼트 업체와 부동산 디벨로퍼, 공공 행정가들이 - 대부분 복합 엔터테이먼트 프로젝트에서 파트너가 되는 - 민간과 공공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자 할 때 복합 엔터테이너로서 건설 전문인의 역할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건설 전문인

현대의 복합사회 속에서 디지털 건설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독립돼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인터넷 속의 수많은 링크들과 연결해 일하고 생각한다



이 명 식
공과대 건축공학부 교수

는 점이다. 즉 언제 어디서든 아이디어를 갖고 건설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고 건설 관련 기업들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블로그·팟캐스팅과 같이 뉴 미디어와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건설 분야에서 공사 현장방송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건설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금융 거래를 가능케 하는 조파(Zopa, 모든 사람들을 은행으로 만들어주는 일대일은행을 서비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를 건설 분야에 응용하여 건설 관련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건설문화가 가까운 장래에 건설 분야에 지배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주목받는 건설문화화 담자만 배제해야 할 건설문화화이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건설문화에 기반한 모델이 변화가 많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디지털 건설문화의 영향력과 세력은 갈수록 커져 건설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동문칼럼

무형문화엑스포

전통문화의 향연으로 부천을 뜨겁게 달구었던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가 지난달 30일 수많은 화제와 기록을 남기고 21일간의 행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부천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들의 호응 속에 프리엑스포(pre-EXPO)형식으로 개최된 올해 행사는 2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다. 처음 총감독직을 의뢰 받았을 때 의아했던 것은 “왜 부천에서 무형문화엑스포를 하지?”였다. 영화프로듀서를 하면서 부천 영화제에 몇 번 간 외에는 그저 어린 시절 복숭아과수원에 놀러 갔던 추억, 회색의 경공업도시로밖에 기억에 없던 곳이었다. 하지만 부천은 더 이상 그저 그런 소규모 위성도시가 아니다.

부천은 수도권 서부 경인지방의 허브 도시로서 짧은 세월동안에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룬 현대적 계획도시로 그동안의 꾸준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통하여 세계판타스틱영화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이미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중 일반에 명실 공히 ‘문화도시’라는 아이콘으로 각인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얻은 이 소중한 도시브랜드는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명제 속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었다.

변변한 문화유산 하나 없던 스페인의 쇠락한 공업도시 빌바오는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 단 하나의 아이템을 유차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변신하였고, 브라질의 쿠리치바 시는 만성적인 교통난과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던 산업도시였지만 계획적 도시 개선 사업의 실현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환경 도시로 탈바꿈하게 됐다. 단순한 문화정책 하나가 그 도시전체의 이미지를 바꿔버린 것이다. 다시말해 문화의 힘인 것이다.

우리는 행사기간 내내 선현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명작의 감동을 체험하였고 한편으로는 고독과 생활고에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 선생님들의 이면도 봤다. 부천에서 시작한 세계무형문화엑스포는 앞으로 문화유산의 복원, 산업과의 연계, 문화제도 개선, 해외 문화교류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 동안 부천시가 어렵게 구축한 문화도시라는 소중한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이 일들을 해 냈을 때 후대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또 하나의 전통 유산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지역축제”책과 함께 아이디어를 선별해 주셨던 김흥우 교수님과 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흔쾌히 맡아 주셨던 임돈희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홍 준 석
부천 무형문화엑스포 총감독
연극영화 09졸

보 리 수

오바마와 육조 혜능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됐다. 오바마는 케냐출신인 혼혈흑인이었다가 부모는 이혼한 결혼 가정에서 자라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악취투성이’의 후보였다. 그러나 미국국민은 세계의 초강대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오바마를 선택했다.

흑인의 나라인 미국에서 사상최초로 흑인대통령이 된 오바마의 성공스토리는 전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상징은 이제 지구상에서 인종차별이란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였다. 그렇지만 미국은 흑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므로 그 불명예를 한꺼번에 씻어냈다. 또 하나의 진보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혼혈출신에 이혼가정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내젓는 것이 인권의식이 부족한 나라들이 보여주는 후진적 행태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형인할 수 없는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다.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그런 짓은 삼투국가에서나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었다.

오바마의 성공담을 보면서 생각나는 고사가 있다. 중국선종의 개조인 혜능(慧能)대사가 불법을 배우기 위해 황매산으로 흥인대사를 찾아갔을 때의 얘기다. 흥



홍 사 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인대사는 짐짓 그의 출신성분부터 물었다. “그대는 어디사람이며, 여기는 무엇 하러 왔는가?” “저는 영남 신주에 사는 나무꾼이운데 오데 부처가 되고자 찾아 왔습니다.” 그러자 흥인대사는 아주 모욕적인 말로 그를 시험했다. “납죽에서 왔다면 오랑캐가 아닌가? 그런 주제에 어찌 감히 부처가 되고자 하는가!”

혜능은 이 말에 기죽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람이야 남북이 있겠지만 불성(佛性)이야 남북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 오랑캐의 몸은 큰스님의 지체와 다르겠지만 불성에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람의 본성이나 능력은 결코양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 능력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보려고 한다. 사람을 채용할 때면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고학이 어딘가를 묻는다. 혼혈한국인이 받는 차별대우는 또 얼마나 큰가. 일류국가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위대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자.

탈수습기

신문사, 정복하는 그날까지 ‘포기’란 없다

“히말라야 설빙에는 지금도 삶과 죽음이 뒤 바뀌는 절박했던 순간과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내 짧은 날의 시간들이 단단하게 꽂혀 있다.”



이정민 기자(공과대 IT학부 1)

산악인 엄홍길은 에베레스트 16좌를 완등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차례의 실패를 ‘포기’가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바꿔 결국엔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16좌 등정이라는 신화를 이룩했다. 그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이 작지만, 지난 6개월을 거친 수습기자 기간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다.

평소 순조로운 것보다는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던 내게 기자란 직업은 우연한 기회로 다가왔다. 1학기를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던 중 직접 취재를 다니며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써내는 친구 모습을 본 후 난 왠지 모를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난 아무 고민 없이 신문사에 입사해 수습기자가 되었다.

하지만 수습생활은 사천 취재교육이란 명목 하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만들어야 할 여름 방학을 신문사에 고스란히 헌납해야 했고, 매주 금요일이면 기사 마감에 위해 새벽까지 기사를 써야만 했다. 지켜가던 수습기자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준 것은 인터뷰를 통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평생 한번 뿐인 인생, 고민하며 살기보단 즐겁게 살라!” 수습기자 생활 중 처음 받았던 외부취재. 그곳에서 처음 만난 Diplomacy사 임덕규 동문이 내게 해주신 말이다. 비록 짧고 보잘 것 없는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고된 신문사 생활에 지쳐 불만이 가득했던 내겐 가장 가슴에 와 닿는 한 마디였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내게 고된 신문사 생활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신문사에 투지한 시간만큼 인터뷰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넓어짐을 느낄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갈 때면 신문사 생활을 하며 겪은 작은 어려움에 쉽게 포기해 버려려 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젠 준비운동을 마치고 신문사의 정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순간이다. 정복하는 그날까지 포기란 없다.” 이젠 지난 6개월간의 수습기자란 도전을 마치고 ‘정기자’로 거듭나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 어떤 취재 현장에서도 늘 포기 하지 않는 기자 이정민! 이제 그의 시대가 다가온다. Coming Soon.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세상돌보기



갈갈이 멀다...

대학생 정규직 취업률 48%.

앞으로의 갈갈이 멀기만한 대학생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공무원시험·로스쿨(법학석사시험) 대비 겨울계절학기 강좌개설

1. 개설장차(총 2강좌, 강좌별 2학점) 가. 비판적사고와 논술 연습 - 법학석사시험(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영역 나. 논증적 사고특강 - LEET 등 언어이해영역

2. 개설기간: 2008.12.22(월) ~ 2009.01.16(금) / 겨울계절학기 기간 ※ 겨울계절학기 정규강좌로 과목당 2학점씩 인정

3. 수업요일: 주 4일 수업(월, 화, 목, 금), 15일간

4. 수업시간 및 담당교수:

구분	오전	오후
수업시간	10:00 ~ 12:00	13:00 ~ 15:00
해당강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습	논증적 사고특강
담당교수	김명식교수	홍성훈교수

5. 수강자격: 제한 없음

6. 수강료: 과목당 170,000원

7. 2차 수강신청 기간: 2008.11.24(월) ~ 12.18(목)

8. 수강신청 방법: 재학생 및 일반인 모두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 명진관 1층)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

9. 성적평가: A~F 등급평가

문 과 대 학

번역서비스안내

동국대학교 부속 연구기관 '번역학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영·한 및 한·영 번역서비스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I. 서비스

번역분야	논문 및 논문 초록	학술자료 및 각종 보고서	단행본
------	------------	---------------	-----

II. 번역 산정기준 (표준 난이도 기준)

원본 기준	A4 용지 1매 (25줄 기준) (용지여백: 좌3099mm 상하30mm)	공씨체
한국어 → 영어	40,000원 50,000원 (원어민 감수 시)	비정액 11
영어 → 한국어	30,000원	비정액 10 (= Times New Roman 12)

※ 텍스트의 난이도가 표준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별도의 번역 산정기준이 적용되오니 담당자와 협의해 주십시오.

☎ 전화(교내): 2260-8657

✉ e-mail: trans@dongguk.edu

본 연구소는 연구소 윤리규정 제 11조 비밀유지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내용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합니다.

동국대학교번역학연구소

"와~ 55만원에 영어캠스를???"
"선착순 60명 한정!!"

동국대학교 영어캠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따라올 수 없는 저렴한 가격
- 통학하며 다니는 3주 간의 집중 영어교육캠스
- 말하기/듣기에 중점을 둔 실용적 영어학습
- 레벨테스트 후 개인별 맞춤학습으로 효과 극대화
- 소수 정예반 운영으로 전원 활발한 참여 가능
- 각 반 원어민담임제 실시로 철저하고 품평한 학생관리

<학점인정>

- 수료자는 교양 3학점 인정 및 졸업요건 영어 Pass제 통과

<교육일정>

- 기 간: 2009.01.05(월) ~ 01.23(금), 3주간
- 장 소: 동국대학교 서울캠캠퍼스(혜화관)
- 수 강 료: 재학생 550,000(교재비 별도) / 타교생 및 일반인 650,000(교재비 별도)

<등록일자>

- 접수 및 납부 기간: 11월 20일 ~ 12월 12일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레벨테스트>

- 레벨테스트: 12월 18일(혜화관 1층, 시간은 추후 공지)
- 영어인터뷰에 따라 1~6단계로 분류, 해당 레벨에 따른 반 편성

<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 온라인 송금
- 신한은행 140-007-481766 동국대학교

<문의사항>

Tel: 2260-3468-3470 / clinic@dongguk.edu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09:00-09:30	Daily Test	
09:30-10:40	Reading & Writing	Field Trip or Media English
10:50-12:00	Conversation	
12:00-13:00	Lunch	
13:00-14:30	Discussion English	Weekly Test
14:40-16:10	Listening & Speaking	
16:20-17:30	Club Activity	

※ 상세스케줄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uet.dongguk.edu)

English Speech & Writing Clinic

English Clinic은 교양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소속의 원어민 교수님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상담분야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클리닉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도 강의실이나 학원에서도 속 시원히 해결해줄 수 없었던 영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 무료로 개설되었습니다.

1. 클리닉 시간: 30분(주 1회)
2. 분야: Speech & Writing
3. 인원: 개인 또는 그룹(4인 이내)
4. 접수 방법: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duet.dongguk.edu) 및 방문 접수
5. 문의 상담: 02-2260-3474(혜화관 2층 소재)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금주의 식단

월 (12/1)	장터국밥(2000)/닭갈비덮밥(2200)/고구마두부가스(3000)/불고기비빔밥(2200)
화 (12/2)	참치김치찌개(2000)/치즈볶음밥(2200)/치킨가스(2500)/오징어덮밥(2200)
수 (12/3)	성황탕(2000)/제주콜로니얼덮밥(2200)/수제돈가스(3000)/떡갈비치킨(2200)
목 (12/4)	육개장(2000)/참치김치덮밥(2200)/치즈돈가스(3000)/하이리이스(2000)
금 (12/5)	꼬치어묵우동(2000)/쇠고기볶음밥(2200)/수제햄박스테이크(3000)/돈육김치찌개(2000)

상록원

월 (12/1)	햄구이(2000)/상록원정식(2500)/볶음밥치킨샐러드(2200)/돈갈비김치찌개(2500)
화 (12/2)	닭갈비(2200)/치즈돈가스(3000)/튀김살뽕(2200)/육개장(2500)
수 (12/3)	두부김치(2200)/새우가스(2500)/후루초카레라이스(2000)/닭갈비(2500)
목 (12/4)	제주볶음(2200)/새우가스(3000)/해물덮밥(2200)/순대국밥(2500)
금 (12/5)	삼선짜국(2000)/두가지맛치킨가스(2500)/볶음밥만두김종(2200)/사브릭국수(2500)

아리수

월 (12/1)	제주비빔밥(2200)/치킨콜소스덮밥(2200)
화 (12/2)	푸짐불고기(2200)/쇠고기국밥(2000)
수 (12/3)	치킨카레라이스(2000)/부대찌개(2000)
목 (12/4)	참치김치덮밥(2200)/해물덮밥(2200)
금 (12/5)	불고기비빔밥(2200)/닭갈비덮밥(2200)

논단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보장

단풍이 채 지기도 전에 바람이 매섭고 눈발이 날리더니 캠퍼스는 방학생활의 구성과 설계에 가슴 설렌다. 하지만 이 시기를 맞는 대학 강사들의 시정은 차라리 장렬하다. 긴 방학이 시작되면 대학의 강사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두 달 반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기약 없이 대학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8년 현재 7만 여명에 이르는 한국의 대학 강사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다.

생사여탈권으로 실추된 지위

우리나라는 외국의 대학과는 달리 대학의 강사를 교원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학은 그들이 교원의 지위를 갖지 못함을 빌미로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고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계약기간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불안정하기 짝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그들의 행복을 찬탈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강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도 주어져 있지 않은 소외된 캠퍼스에서 영원한 주변인으로서 그림자처럼 은신하고 있다. 최소한의 연구공간마저 제공되지 않아 강의 준비마저 승용차 안이나 빈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가장 불합리한 착취가 우리 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에게 물

고 싶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혹독한 탄압과 찬탈행위를 계속하려 하는가. 대학의 강사들에게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소신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저임금 속 생활고

구체적으로 대학 강사들의 임금 실태는 어떠한가. 지인들에게마저 차마 밝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대학 강사의 경우의 평균연봉은 500여 만 원을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년 중 5개월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며, 10년 20년을 헌신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다.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의 임금으로 과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강의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막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대학 강사들의 희생을 방치하면서 대학의 유지와 발전을 모색하려 하는가.

우리가 전임교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원하지도 않고 있으며, 동등한 수준의 연구공간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10분의 1이 넘는 차별을 최소화하고 30여 년 전 군사정권이 찬탈해간 교원의 지위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지탱하는 대학의 착취 구조는 이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대학의 인식전환과 대학 강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의 강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임교원확보율은 국립대의 경우 72.9%, 사립대의 경우 64.2%로 평균 66.2%에 그치고 있다. 전임교원확보율의 준수는 대학 존립의 최소한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대학이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면 수준 높은 수업권과 질 좋은 강의가 보장될 수 있음은 물론 시간강사 문제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각 대학들은 학생의 등록금을 평균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이 인상하면서도 대학 강사에 대한 배려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더 이상의 방치는 대학의 발전을 막는 장애가 될 것이며 모든 부담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대학 강사들의 교권 보장

대학 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학 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나아가 교원 지위 보장과 처우개선은 별개의 사안인 아닌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대학의 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강사들의 수당에 대

한 정부보조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도 연말에 반값 내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일상이다. 그렇지만 교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개선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대학 강사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비인권적인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책임을 묻고 싶다. 물론 재정난을 이유로 한 사립대의 반발도 크겠지만 이를 이해시키고 실현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회는 조속히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 조달의 문제가 있어 입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나 이는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은 재정문제를 핑계 삼아 대학의 강사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권은 더 이상 현실론을 빌미삼아 책임전가에 급급하지 말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촉구해 나가겠다.

그것만이 한국의 젊은 지식인들을 강의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하우영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사설

중소기업과 취업

본사가 중소기업청의 후원을 받아 대학생 중소기업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같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수년간 이어져오는 청년실업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가의 주된 화두다. '이태백' (이십대의 태반이 백수)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청년,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직난과는 반대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곳도 있다. 바로 중소기업이다.

지난 1468호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9월 인쿠르트가 실시했던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를 보도했다. 그 결과 기업 선호도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부처, 공기업, 외국계기업에 이어 꼴찌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신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 같은 기피이유로는 낮은 급여 (50.6%), 고용불안 (22.4%) 등을 꼽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한 등문들의 반응은 다르다. 그것은 편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프라임 상호저축은행에 취업한 최경미 동문은 "오히려 능력에 따라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 중 99%, 고용비율 88%를 차지하며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보다 더욱 넓은 취업의 문이 보장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 등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회사와 함께 직급이 올라가면서 정년을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대기업 취업이 과연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확인하고 점검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홍보부족으로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은 아직은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취업은 우리 대학생들의 기본적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능력이 모자라 찾는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더욱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 대기업과는 다른 중소기업만의 특징을 대학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중소기업도 낮은 임금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학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대학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사가 참여한 '대학생 중소기업 인식개선 캠페인'이 대학사회의 점진적인 인식변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만평

정명근 gmg@naver.com



메아리

대학가 훌리건

▲훌리건(Hooligan)은 '영어' '건달, 강패'의 의미로 축구장에서 난동을 일으키는 광적인 축구팬을 지칭하는 말이다. 옥스퍼드대학의 기록에 의하면 '훌리건'이란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1898년 영국의 한 주간지에서 라고 한다.

그러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악명 높았던 강패 'Houlihan' 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슬라브어와 러시아어에서 같은 단어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 단어가 동유럽에서 생겨나 영국으로 유입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싸움을 일삼는 불량배나 강패 등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1960년대 축구장 폭력이 점점 기승을 부리게

되자 축구장에서 난동을 일삼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경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훌리건들의 난동은 유행참사는 물론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985년 브뤼셀 하이젤 구장에서 영국 훌리건 난동으로 스탠드가 붕괴되어 40여명이 사상한 사건 등 대형 참사가 속출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훌리건 대비책을 세우느라 고심해왔다.

▲우리나라의 대학가에도 훌리건이 존재한다. 그러나 광적인 축구팬을 뜻하는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여기서 훌리건은 인터넷공간에서 특정대학교의 우수한 점만을 각인시키거나 특정대학을 비방하는 누리꾼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음 '훌리건 천국' 카페와 디씨 인사이트 4년제 대학 갤러리 등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이른바 '서연고...'로 시작되는 정답없는 대학 서열 매기기에 열중한다. 아웃풋을 의미하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자 수와 인풋을 의미하는 수능 배치표 등을 어떤 이들보다 신속히 공유하고 논쟁을 벌인다. 그리고 이들은 입시철이면 어떤 이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한 입시상담가로 변신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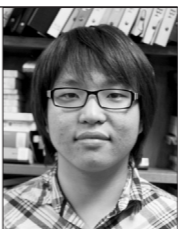
▲수많은 훌리건들이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사랑, 공동체 의식이 이들을 자발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게 하는 힘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에는 대학을 각 자의 특성에 맞게 보지 않는 '대학 서열화'라는 어두운 자화상에 존재한다.

▲훌리건은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 현상이 낳은 기형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나름의 학교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대학 홍보와 입시의 상담자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난동을 일으키는 본래 훌리건들의 행동에서 보듯 지나치다 못해 폭력으로써 잘못 표현된 사랑은 도리어 본 뜻을 잃을 수 있다.

훌리건들이 진정으로 대학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신뢰와 매너를 지킴으로써 대학의 성숙된 문화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었다.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Advertisement for Dongokgo (동옥고)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Dongokgo (동옥고) featuring a list of target groups (children, students, workers, elderly, etc.), a list of ingredients (ginseng, ginseng, etc.), and a price table.

동국의 베토벤 바이러스 근원지 《OPUS》동아리를 찾아

“전공도 출신도 다르지만 오케스트라가 좋아 뭉쳤다”

연습실도 정식교육도 받은 적 없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7년째 정기공연

오케스트라 동아리 《OPUS》는?

- 2002년 1월 OPUS 첫 발족
- OPUS 동아리명은 작품명이라 뜻의 OPUS에서 명명
- 현재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등으로 구성
- 매년 정기연주회와 신입생 환영 연주회, 수석사 산사 음악회 개최
- OPUS 단원 신청은 학생회관 1층에서 연중 모집



▲ 사진은 정기연주회 당시 《OPUS》 단원들의 모습.

“클래식은 네모다 라고 했을 때 네모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누군가 물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 어느 지휘자가 내놓은 답변은 “동그라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였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대사 중 하나다. 권위 있고 다소 딱딱한 느낌이었던 베토벤의 이름이 주인공의 애완견 이름 ‘토벤이’라고 둔갑할 만큼 클래식을 친근하게 만들었던 드라마였다. 수준 있는 사람들의 전용물이라 생각했던 클래식을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해 ‘누구나 가능한 음악’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갖게 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이런 베토벤 바이러스의 원조는 따로 있다. 베토벤 바이러스에 앞서 ‘동국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며 유쾌한 연주 공연을 펼쳐 온 ‘OPU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클래식이란 무엇일까. 네모도 동그라미도 아닌 그들만의 클래식을 들여다보고자 OPUS 동아리를 찾았다.

백백하게 악기로 가득 찬 공간. 몇 평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가 한 데 어우러져 호흡하기도 벌써 7년째다. 연주회를 갖는 횟수가 많아지고 점점 연주 실력도 늘어 가지 만 매년 정기공연 연습 때마다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합주이다 보니 모두 모여서 연습을 하면 좋지만, 다같이 한 번에 연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연습할 공간도 구하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10명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악기를 들고 연습하자면 강의실 크기의 공간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한다. 강의실을 구한 후에도 책상을 모두 뒤로 밀어붙인 다음 악기가 설 무대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음대가 없는 우리학교 현실에서 전문적 배움이 필요하다면 직접 사비를 털어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들이지만 여전히 ‘클래식’만이 살아가는 이유다. “악기비에 개인 레슨비까지 부담이 큰 데도 동아리에 사람들을 남게 만드는 것이 클래식의 매력 아니겠어요”라며 클래식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클래식이 다소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상할 법도 한데, “좋아하는 곡은 귀에 속속 잘 들리지만, 싫어하는 곡은 저희도 좋려요”라며 “하지만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듣다보면 그렇게 밖에는 들릴 수가 없거든요. 클래식 감상의 가장 큰 방해물은 선입견이요”라고 말한다. 클래식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들어보기를 권하는 OPUS 단원들.

그들이 추천해 주는 클래식 감상 팁은 바로 ‘여러번 접해보기’이다. 자주 듣다 보면 내가 놓쳤던 부분이 들리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받는 느낌이 달라진다고 한다. 여러 번 접해본 후에는 곡에 대한 해석을 읽어 보는 것도 추천하는 팁이다. 내가 받은 느낌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곡의 느낌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클래식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는 ‘클래식의 재미’에 대해 소개를 부탁하자, “클래식은 평생 할 수 있는 취미가 될 정도로 재미있는 음악”이라고 답한다.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주회를 찾아오는 OB들의 사랑만 보아도 클래식의 재미가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연 중 한 번, Simpony 50번 연주회 위해 1년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계획 중인 앞으로의 공연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자신들의 소리가 주가 되는 공연이라고 한다. 클래식은 네모다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OPUS 단원들의 대답은 “함께 하는 즐거움”이었다. 분명 네모도 동그라미도 아닌 아주 클래식한 대답이었다. “개개인마다 박자

세는 속도도 다르고 클래식을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꼭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이올린과 트럼펫 트럼펫과 플루트 플루트와 다시 바이올린.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 클래식이 바이러스처럼 그들의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순간이다.

누구나 베토벤은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유명하다는 베토벤을 애완견의 이름으로 붙여 ‘토벤이’라고 부르는 과정까지. 아무리 재미있는 클래식이라 할지라도 꽤 깊이 박힌 선입견을 단박에 깨기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럴 때쯤 꼭 한 번 감마에의 따끔한 충고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부터 연주할 곡은 농민들의 반란을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만큼 할 수 있다. 반란을 보여줄 겁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전 믿습니다” 언젠가 클래식이 익숙해질 반란의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말이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 클래식 기타 연주가 한창인 《현여울》 기타리스트들.

클래식 기타동아리, 《현여울》을 만나다 ‘끈끈한 배움의 대물림’ 통해 클래식 선을 전수

클래식이라면 ‘별로’라는 사람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 주고 싶은 이야기 하나. “위대한 클래식은 없다”, 이야기 풀 “클래식은 음악의 기초다”, 마지막 셋 “클래식이 알고 싶다면 배우고 싶고 배우면 더욱 듣고 싶어진다”

모든 음악의 시작이 클래식에서 비롯되었다면 클래식은 다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클래식은 바로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 것이다. ‘고리타분하지 않은’ 클래식의 정석을 보여주는 동아리, 현여울의 기타리스트들을 만나봤다. 기타줄을 한 줄 한 줄 뜯으며 음의 소리를 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클래식 기타

의 연주라면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가 더욱 힘들진 않을까. 기타리스트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분명 설레겠지만, 설레는 감정이서 딱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솔직히 클래식이 좋아 동아리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기타를 뜯으러 왔다가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출발은 기타였지만 결국 클래식의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대답을 건넨다.

“다음 역은 총무로, 총무로역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흘러나오는 곡 역시 클래식. 일상과 가장 가까운 음악을 꼽으라면 클래식이란 답해도 무

리 없을 만큼 클래식은 익숙하다. 익숙함이 클래식의 매력이라면 매력이요, 헤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면 뜻이다.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클래식의 특성 때문일까. 현여울 클래식 기타동아리에는 독특한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바로 ‘배움의 대물림’이 그것. “우리학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도 클래식 기타 선생님은 많질 않거든요, 때문에 앞서 배운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직접 지도해 주세요” 첫째가 입은 옷을 둘째가 물려 입듯, 1기가 배운 가르침을 2기가 물려받아 현여울은 발전하고 있다. 가장 든든한 밑거름을 지원받아 성장하고 있는 YB들.

OB 선배들의 따뜻한 씬씀이에 보답이라도 한다는 듯 그들은 안벽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 개인의 연습 외에 연주자들간의 호흡을 위해

MC(Music Camp)라는 것을 떠날 정도로 말이다. 이 행사는 합주 전 무리 없이 친해지도록 현여울이 마련하는 특별 캠프다. YB는 YB 나름, OB는 OB 나름으로 클래식한 가운을 일궈내고 있다.

점점 대대손손 번성하는 현여울. 그들이 생각하는 클래식에 대해 물어보자, 대뜸 일상이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대학에 들어와 클래식 기타를 너무 열심히 치다보니 밥 먹고 잠자는 일 외에는 기타 치는 일밖에 한 일이 없을 정도라고.

밥 먹고 잠을 자는 생활 외에는 클래식밖에 모른다는 현여울 동아리 사람들의 열정을 믿어보라. 올 겨울 그들이 전하고픈 메시지, “클래식과 함께 메리크리스마스” 고리타분하지 않은 클래식은 언제든 준비돼 있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금주의 DUBS

영화 속 이 대사는 영어로 어떻게? 팝콘 잉글리쉬

영화를 통해 상황별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 ‘팝콘 잉글리쉬’, DUBS와 POST의 합작 프로그램으로 매회 다른 상황별로 두 개의 영화를 선정해 그 속의 대사를 직접 듣고 보며 익혀본다. 프로그램 속 작은 코너 ‘팝콘 잉글리쉬 리버스’에서는 한국 영화 속 명대사를 영어로 바꿔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송에서는 영화 귀여운 여인과 화이트 칩스를 통해 소꿉 할 때의 표현을 알아본다. ‘팝콘 잉글리쉬 리버스’에서는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의 명대사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야’를 영어로 바꾸어 본다.

PD : 신성필, 최이라 ENG : 이정화 ANN : 이조은

모교 출신 유명인은 누구? 시대공감, 동국인을 만나다

동국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교 출신의 자랑스러운 동국인을 찾아보고 그들의 학교 생활과 기타 활동, 업적 등을 알아본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국인들을 만났으므로 본교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점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1회 만에 한용운을 시작으로 신경림, 서정주 시인, 유현목 영화감독 등 6회 분까지 방송됐고 현재 마지막 7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REP : 이기람, 김형민 ENG : 김수인
본 영상은 교육방송국 홈페이지(http://www.dubscast.com)를 통해 볼 수 있다.

교양과목 100% 영어강의부터 국내·미국 학사학위 동시취득까지- 준비됐습니까?

동국대학교의 글로벌교육은 강합니다

- ‘교양과목 100% 영어강의’ 영어트랙제
- 한국, 미국 2개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본교에서 2년, 미국대학(뉴욕주립대: SUNY-Stony Brook, 텍사스대학: University of Texas, Dallas)에서 2년의 대학생활
- 국내 유일의 강의평가시스템
- 2008년 미국 경영교육인증원(AACSB) 예비인증위원회 승인

2009학년도 입시설명회

2008년 12월 6일 (토) 14:00 중강당(본관)

대상 : 학부모, 수험생 강사 :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

2009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서울캠퍼스 (정시 가,나) 2008.12.18(목) ~ 12.23(화) <http://ps1.dongguk.edu> | <http://www.dongguk.edu>

경주캠퍼스 (정시 가,다) 2008.12.19(금) ~ 12.24(수) <http://ps2.dongguk.edu>

세상을 보는 눈, **dongguk**을 보는 지평, **UNIVERSITY**